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1/2



서울시 중구 창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세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림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1호 2003년 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은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3년 1월 15일

2	권두언	노무현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김중해
4	보육정책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본 보육의 과제	보육정책위원회
11	기획시리즈 1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그 시작을 제안하며	본회 교육부
13	기획시리즈 2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그 시작을 제안하며	심선경
16	특별기고	보육정책의 여성주의적 고찰	이수영·윤연숙
28	한일보육교류 10년	한일보육교류의 10년을 기억하며...	허구치 슈이치
36	한일보육교류 10년	연표로 한일 보육 교류 10년	편집부
39	한일보육교류 10년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편집부
41	한일보육교류 10년	염소, 토끼와의 만남에서 이별까지	허경남
45	한일보육교류 10년	사진으로 보는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	편집부
49	현장교육 1	아이들과 함께 만든 생태어린이집- 텃밭 가꾸기, 건강 먹거리	김순아
53	현장교육 2	폐품을 활용한 활동	포구나무어린이집
58	현장소식 1	훈제치킨과 꿀병이 무침의 향기	이교진
61	현장소식 2	확대간부후원을 갔다와서	이보경
63	새내기인사	이젠 세상에 참여하자!	이수미
65	인물탐방기	임남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보육교사회는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	이원경
68	좋은 그림책소개	압둘 가사지의 정원	이진실
70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민수, 민기 오누이 이야기	이선미
72	육아일기	미운 일곱 살 소년이	전경숙
75	세상읽기	우린 냄비가 아니다.	이선미
77	목소리	장애유아통합보육(교육)을 위한 교사의 작은소망	김유라
80	알림단		편집부
82	보육계풍향		편집부
84	소식과 소식		편집부
91	편집부에서		편집부

노무현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되었다. 대통령의 교체는 우리 나라의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보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보육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공약들을 정책으로 실시할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보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4대 비전 중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약은 여성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보육료 절반 지원
-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
-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정착
- 육아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 공적 보육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

이러한 공약들의 상당수는 보육관련 단체들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차례의 정권(YS와 DJ)동안 나름대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나 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보육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목표가 보육서비스의 양적 공급 확대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점 관련 단체들의 감시(?)와 주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약들이 주로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보육정책을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여성정책에 부수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유지를 위해 출산과 육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이점 보육정책이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이다.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들을 시행하다 보면 보육분야의 예산이나 보육서비스의 총량은 분명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양만 증가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커다란 방향의 확립없이 표피적인 대안들만 만들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약들을 정책으로 전환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분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교육분야에 들어있는 유아교육법의 제정 문제가 그렇고, 보육분야 내에서도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과 보육교사, 보호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모순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가 역시 시민단체의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나 행동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필요한 보육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본 보육의 과제

정리 보육정책위원회

200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육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규모의 보육 실태 조사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이후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육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래 결과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자료집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1.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

1)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2002년 5월 15일~2002년 10월 15일(5개월간),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조사구의 약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각 조사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보육대상아동(12세 미만) 거주여부를 확인 후,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3,369가구에 거주하는 5,474명의 보육대상아동(만12세 미만 아동)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지역적 분포는 대도시 1,606가구(47.7%), 중소도시 1,201가구(35.6%), 읍·면지역은 562가구(16.7%)이다.

2)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보육대상아동 중 부모 이외에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이나 개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등) 등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율은 총 71.6%이고, 이 중 기관은 64.0%, 혈연 10.5%, 비혈연 0.9%임.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군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0.9%로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이 부모이외의 다른 양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도움보다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육의 문제가 개별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많은 가정이 양육과 관련된 도

움을 필요로 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 수준에 대하여 51.3%는 적당하다는 의견이고 9.1%는 매우 부담, 33.2%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는 조금 더 비싸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아동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보호자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25.0%로 매우 높고 영유아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영아가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이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28.0%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음.

- 결국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의 정도가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별로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차등보육지원제도의 마련이 요청된다.

3)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사유

1. 최초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은 사유는 전체적으로는 자녀개발이 45.9%로 가장 많고, 모의 취업(28.1%), 모의 육아부담 감소(5.2%), 모의 부재(1.0%) 등의 순임. 영아는 21.7%가 모의 취업이 가장 높고, 유아는 자녀개발을 위해서 47.1%, 모의 취업 34.0%, 초등학교는 자녀개발을 위해서가 각각 63.0%로 매우 높지만, 모의 취업도 28.7%로 나타남.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영아의 경우 63.2%로 현저하게 높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43.8%로 유아보다(26.5%) 높음.

- 전통적으로 가정은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의 전승,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한 사회화과정을 위한 준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이후에 다양한 직업의 출현과 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등장시켰다. 즉, 가정내에서 담당하던 자녀교육의 많은 내용이 사회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양육지원서비스를 단순히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개발(교육)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대답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다른 양육기관에 비해 보육시설의 경우 대리양육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각 가정의 조건에 따라 대리양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은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질 높고 포괄적인 양육지원의 내용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2. 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교사자질(15.0%), 집과의 거리(14.5%), 프로그램(10.6%) 등을 뽑고 있는데 고려사항의 평균값을 보면 집과의 거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운영시간이 2순위로, 교사자질, 프로그램, 분위기, 주위평판이 3순위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족한 사유 조사 결과, 시설설비가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영양 5.3%, 건강 4.8%, 안전과 교육내용이 각각 4.5%, 교사자질 4.1%의 순이다.

(※ 실태조사 설문에서 기관선택시 고려사항의 내용은 원장운영철학, 교사자질, 운영시간, 비용, 프로그램, 건강영양, 시설규모, 이용아동가정수준, 분위기, 안전, 집과의 거리, 주변환경, 공립여부, 주변의 평판 등 14가지 항목임.)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노후화된 보육시설을 안전설비 등을 보강하여 보수하는 것과 영양, 건강, 안전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자격제도의 정비, 재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3. 보육시설 이용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보육시설 이용 후 자녀에게 미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 결과, 조사에 포함된 10가지 항목이 모두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최고 85.3%, 최저 57.6%이어서 시설 보육이 10개 항목 모두에서 아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평가되었고 사회성 발달, 신체활동능력, 예의범절 면에서 특히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모에게 미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매우 많다. 많다는 합하여 모두 68.1%가 변화가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업무능률향상 56.2%, 육아지식 확대 35.0%, 취업 34.5%, 사회 및 취미활동 참여 26.9%, 가족갈등완화 25.0% 순으로 보육시설이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모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의 내용에 취업이나 업무능률향상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육아지식의 확대나 가족갈등의 완화 등이 포함된 것은 부모역할수행이나 전반적인 가족양육의 문제에 대한 지원에 보육시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보육시설이 부모의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제도로써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2. 보육수요 추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육수요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추계는 일반적인 보육시설이용 희망율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는 이용의사가 있느냐로 질문하여 그렇다는 대답인 경우 모두 보육수요로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보육수요를 예측하면 영아의 경우 현재는 이용하기 어렵지만 아이가 좀더 자란 후에 이용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연령별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잠재적인 보육수요의 정도를 파악하는 의미가 있다.

단기추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시기가 현재 연령과 동일한 경우만을 특정연령의 보육수요로 본다. 따라서 실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보육수요는 단기추계의 수요로 본다.

1. 영유아 보육수요 추계

1) 추계I : 영유아보육수요 장기추계

- 영유아 전체의 일반적인 추가 보육 이용희망률은 46.4%임. (영유아를 구분해 보면 영아 74.7%, 유아 24.7%가 추가보육을 희망함.)
- 일반적 추가이용 희망률에 기초한 장기 영유아 추가 보육수요 규모는 총 182만명으로 추계됨.

2) 추계II : 영유아보육수요 단기추계

- 현재 아동연령과 동일한 연령대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희망률은 영유아 전체 6.8%임(영아 5.3%, 유아 8.0%).
- 이에 따른 단기보육수요는 영아 90,599명, 유아 160,293명, 총 250,892명 규모로 추계되었음.

- 2001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약 2만여개소로 총 734,192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0~만2세의 영아는 168,575명이다. 추계된 단기보육수요 25만명은 현재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34%에 해당되는 수이다. 즉, 현재 보육시설이 34%이상 늘어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아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영아수의 50%이상 늘어난 수요가 있다고 할 때 유아보다 훨씬 많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 방과후보육 추계

1) 추계 I : 방과후보육 수요 장기추계

- 방과후 보육도 영유아 보육수요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비율은 21.5%를 장기 보육 추가수요로 파악함.
- 이러한 일반적 추가보육 수요율에 기초하여 보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91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추계 II : 방과후 보육수요 단기 추계

- 6개월 이내 방과후보육 이용희망률 14.2%에 기초한 단기 방과후 추가보육 수요는 59만 6천명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 단기 수요는 장기, 중기 수요 91만명, 75만 8천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임.
-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불과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단기수요만으로도 현재보다 40배 이상 방과후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3. 특수보육 수요

1) 보호자의 특수보육 필요경험

- 야간, 24시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경험 빈도는 매우 높음.
- 야간보육은 자주 48.5%, 가끔 6.7%로 총 56.2%가 필요 경험이 있음.
- 24시간보육은 자주 46.3%, 가끔 2.1%로 총 48.4%가 필요 경험이 있음.
- 휴일보육은 자주 44.8%, 가끔 1.9%로 총 46.7%의 필요 경험이 있음.

2) 특수보육 이용 의향여부

-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7%, 휴일보육 24.2%, 24시간보육 22.7%의 순서로 나타남.
- 조사결과 특수보육(시간연장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려나 이 결과는 매일 시간연장형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1주일, 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시설운영 규모를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이용자의 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무엇이 더 필요한가?

1)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단기수요만으로도 보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특히 방과후 보육의 경우는 요구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제도정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현재 보육예산에는 방과후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육료 차등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율이 다르고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보육비용의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이하의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2체계보다 세분화된 구분을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아동들이 보육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안전과 영양관리,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를 통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시설과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책임과 의무를 부모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 다양한 가정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4) 보육인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육의 질은 결국 보육교사의 질로 결정된다.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 내 필요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종일보육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을 담당할 경우 보육교사와 시설장만으로 모든 보육업무를 완벽하게 담당할 수 없다. 간호사, 영양사, 사무인력, 사회복지사, 취사, 청소인력, 상담가, 보조교사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인력에 대한 개선과 제배치는 보육환경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무엇보다 보육문제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그 시작을 제안하며 - 1

본회 교육부

보육교사들의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자리가 아닌가?

하루 10시간 근무, 하루종일을 2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현실인데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육활동에 뛰어들어 많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은 보육교사의 1차적 임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를 잘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육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습니다. 보육환경의 개선은 법, 제도,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보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인적 구성인 보육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환경의 개선은 외부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이들의 대변자로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은 단지 주어진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 상담과 보육시설운영의 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견학이나 소풍을 계획할 때 보육교사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부모상담시 보육교사들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주체적 참여할 수 있는지,

보육교사들의 자발적 문제의식들은 보육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육교사들이 현재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활동들이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업무수행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해 내려야 하는 많은

결정들 속에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는 어떤 경로로 반영되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활동에서 단순한 업무수행자가 아닌 한 주체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전부를 보육활동에 투여하지만 힘든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 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보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자리를 찾기 위해 본회 교육부에서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진단해 보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보육현장에서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격월1회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며, 2003년 동안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선경 선생님께서 모임을 이끌어주실 예정이며 매회 논의 된 내용은 우리네 아이들에 정리하여 게재 할 것입니다. 모임 참가신청은 2월8일까지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그 시작을 제안하며 - 2

심선경 · 명예회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어느날 갑자기 한국보육교사회로부터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를 위한 연구의 진행 제안을 받고 격정도 되었지만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과거에도 그랬듯이 ‘함께 하면 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대뜸 “하지 뭐.”라고 대답해 버렸다. 이제부터 보육교사 여러분들과 올해의 현장연구를 다음의 내용으로 풀어보려 한다.

그 동안 보육시설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다루어져왔지만 정작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그리 심도 깊게 다루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일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다루었던 보육교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도를 통한 보육교사의 권익신장 내지는 건강, 여가 활용 등의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과연 좋은 보육교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것이고 좋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득 문득 ‘나는 단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는 아닌가?’ ‘난 유능한 보육교사로 인정받고 있는데 자꾸만 지쳐만 가는 것은 왜일까?’ 등등의 회의를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린이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린이집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의 중심에 우리 보육교사 여러분을 놓아보아야 할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그 시작을 열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어린이집의 환경과 일상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하나 하나가 어린이집의 주체로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이후 과제를 만드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위함이다.

※ 연구내용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집의 중심에 자신을 두도록 하자. 왜냐하면 내가 없는 어린이집은 내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보육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물리적 환경, 비물리적 환경-에 대해 보육교사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 외에도 교사회의, 행사준비, 부모상담, 부모회, 교육활동 준비 등의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보육교사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할 뻔은 아닌지, 모든 활동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교사들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연구에 참석하는 교사들과 함께 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본 질문을 가지고 연구 내용을 풀어가고자 한다.

- 01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02 보육교사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가?
- 03 보육교사(나)를 둘러싼 어린이집의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04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활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05 어린이집의 의사결정구조는 어떠하며 보육교사 자신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모임 진행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 보육교사들의 입을 통해 엿어질 것이다.

올 한해동안 현장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의 답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사여러분들이 임파워먼트 되는데에 단초가 되리란 커다란(?) 기대를 해본다.

※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위 글에서 언급되었던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임파워먼트는 주로 미국에서 동기부여 개념과 인간잠재력 및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성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능력고취, 역량 강화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과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의 탁아소들이 자모회 등 사업을 통해 자모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어린이집의 주인으로 더 나아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방법들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세력화 하는 실천방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임파워먼트(최영인 2001)-즉 교사자신의 인간적 전문적인 강점들을 강화하고 자기 활용성을 높여가는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과정과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육정책의 여성주의적 고찰

이수영 ·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윤연숙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1. 들어가며

여성의 재생산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국가는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 왔다. 이는 재생산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적인 사안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법에서도 이러한 재생산과 관련된 정책은 모성보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보육시설의 수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개별가정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성노동력 활용,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의 보육의 논의는 한 경제 일간지¹⁾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스템' 구축의 시급함과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보육의 문제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국가적 중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이렇듯, 현재 보육 문제의 시급함과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보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그러한 논의는 부족하고, 논의가 있다해도 기존의 행정학·아동복지·가족복지의 관점에서 보육의 질 향상, 보육시설 확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³⁾ 국내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실질적 욕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며, 보육 행정절차 및 집행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 집행자의 mind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글은 보육정책을 실제 육아문제의 일차적 책임자인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보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보육

보육의 문제는 지속적인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육이 생물학적 성차에 기반해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있다는 본질론적인 논의, 부분간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보육이 여성의 지속적인 caring을 수반하는 문제로, 양육·보살핌의 측면을 여성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고 이를 긍정적인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caring의 비가시적이고 성차에 기반한 성별분업적인 본질론적 논의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보살핌의 문제는 비단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여성들의 보살핌, 관계 지향적인 측면으로서의 '보살핌의 윤리', '여성주의 윤리'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여성주의 윤리의 논의는 캐롤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의 논의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주의 내에서는 길리건의 논의에 대해, 이를 여성주의 윤리로 봤을 때의 성역할의 고정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국내의 논의로 장필화(1995)는 여성주의 윤리학으로서의 보살핌을 강조한다. 이는 '신체결정론'과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이 제한된 여성들에게 도덕적 주체로서의 판단과 선택, 행동 등이 가지는 의미로서 보살핌 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기존 윤리학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역할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성성'으로서의 윤리, 여성만의 윤리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윤리학의 패러다임으로 모두에게 요청되는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허라금(1995)은 서구 윤리학의 계보에서 여성주의 윤리학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여성주의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1) 매일경제는 "우먼코리아 보고서"를 맥앤지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활용, 보육정책의 확대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1. 4)
- 2)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준이 된 한국 출산율(가입 여성 1인당 출산 횟수 1.3)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 한명에 그치는 여성이 늘기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를 이끌어갈 생산인구를 줄게 해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 (2002-10-23) 7페이지! 한국여성 보육, 여성만의 몫이 아니다 (4)

- 3) 유희정(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의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 계획 시안 개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미경(1994).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 비추어, '여성과 사회', 5호 등 참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으로서의 보살핌의 윤리 논의와 함께 보육의 성별분업 측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재경(1995)은 공적영역에서만 논의되었던 정의(justice)의 관점이 사적 영역 즉, 가족에서도 논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의 관점에서 가족을 본다는 것은 가족 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즉 가사노동과 양육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내에서의 논의와 함께 최근 한국에서 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단체 뿐 아니라 여성연구자들에 의해서 보육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4), 이들의 시각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현재 보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육이 사회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대두되는 법적·제도적인 문제점, 보육의 질 - 교사의 질, 처우개선, 보육환경의 문제 -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육의 질의 제고, 시설의 확충'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학, 사회복지학적인 관점과 차별화 되는 측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3. 보육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여성

정책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측면으로, 이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과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 확충'을 설정하고 있는데 5),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보육사업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근거로 2010년에는 경제수준이 선진국 대열 진입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을 꼽았다(보건복지부, 2001). 이것은 보육정책의 목표가 아동복지가 아닌 국가 경제발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4) 대표적인 연구로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5) 이러한 기본 방향의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재정립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야간·휴일·24시간 보육 등)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이용율이 8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지원원칙 재정립차원에서는 보육사업에서 민간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보육서비스 부문을 보완하고, 특수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보육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다(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2002).

그러나 보육정책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안건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아동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정책 활성화의 근거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 확충'을 꼽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다. 보육정책의 실질적 근거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 확충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당시 해당국가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반면, 국가 경제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 가장 먼저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내몰리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보육정책 활성화 근거를 여성의 사회활동(노동시장) 참여에 두는 것은 보육정책이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보육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았을 때,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만들어져 각 광역자치단체에 하달되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하위 자치단체에 다시 하달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고 할 때 대민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집행기관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수렴되어야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육정책에 있어서 feedback이라는 네트워크의 과정은 부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육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관계자(보건복지부 관료,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 교수, 보육교사 등)가 참여하여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보육정책의 실질적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아동이나 여성(부모)의 이해나 요구가 수렴되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육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의견이 보육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여건을 알 수 있다.

4. 보육정책의 차이와 차별

보육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이 때로는 부부간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위치 지워지는 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에서의 차별의 지점을 드러내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문화된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보육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책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에서의 남녀간의 차별의 지점은 보육의 목표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정책의 목표와 실제 정책간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괴리는 보육정책의 목표가 여성과 남성과의 차이에 기반하여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와 정책간의 괴리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포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그러한 정책 실행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것이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상에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 조항은 없지만, 실제 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정책의 목표와 실제 정책간의 관계는 남녀간의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은 여성간의 차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이영(1998)은 이는 가족에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보고, 가족이 이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 우선순위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제17조를 보면, '우선입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그리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맞벌이부부의 자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육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임과 동시에 보육과 여성의 관계, 더 나아가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을 국가정책의 틀 안에서 이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상에서 여성은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보육의 책임을 가족에 우선하고 맞벌이 부부자녀에게 우선 입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는 전업주부 / 근로여성의 분리 문제이며, 또한, 우선입소 조항⁶⁾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보는 것은 중산층 여성 / 기층여성을 분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안에서의 '맞벌이부부'의 규정에서 그 여성의 직업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기층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 파트타임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을 때, 실제 국가의 보육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여성들이 그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다⁷⁾. 물론 이 법안이 복지의 관점에서 저소득층 및 근로

6)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우선입소 조항을 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 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7) 이러한 문제제기는 다른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김종해(1993)는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육필요아동은 약 3만명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확실히 소득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역, 소득방식, 가구의 크기, 가구원의 특성, 주거 형태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제2회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참고.

로자 자녀의 보육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일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러한 시각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현재의 재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원의 성격이나 방향에 있어서 정책을 통해 국가가 여성, 즉 중산층·전업주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이들의 욕구나 관심사는 국가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안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최근 장애아의 경우 국가가 그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농촌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대도시에서 밀집해 있어서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육을 접근하는 관점은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약자,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 사업의 측면에서 보육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법은 일하는 여성의 보육은 어느 정도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양육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 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중산층 여성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보육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보육을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전업주부'의 경우 국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기층여성을 국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5. 차이와 차별의 맥락

5.1. 여성과남성간의 차이와 차별의 맥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가적으로 보육의 목표를 여성노동력 활용과 국가 경쟁력의 확보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보육정책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맞물린 일시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점이 고려되기 보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노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처럼 보육정책을 보는 관점은 보육정책에서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 지을 뿐 아니라, 남성과 다른 노동자로서 여성을 차별하는 맥락으로

8)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지방에 α K라 그리고 소득계층의 구분의 단계별 단계별 정부부담률, 보호자 부담률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동경 23구의 보육료는 소득 등의 조건에 따라 A, B, C1-C3, D1-D21h 세층의 세분되고 3세 미만, 3세, 4세 이상에 대해 각각 다르게 부과되며, 2명 이상을 보육소에 입소시키는 경우와 둘째 자녀이후의 자녀 보육료는 다르게 부과된다. 장미경(1993),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여성과 사회』, p.102, 참고.

살펴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육정책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은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의 노동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 노동자로서 명명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서의 전업주부, 농촌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보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여성노동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보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지움으로써, 국가적으로 여성노동자의 필요할 때에는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고려해야하는 정책으로 설정하지만, 반대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여성이 다시 자신의 자리인 '가정'으로 돌아가 보육의 문제를 전담하고 이를 해결해야하는,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처럼 보육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다르게 보는 시각은 남성은 보육의 일차적 책임에서도 면제하는 특권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남성과 여성 공동의 책임이라는 시각은 최근 남성의 출산휴가문제, 육아휴직의 논의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남성의 숫자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보육은 여성들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불리 남성과 여성이 모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논리가 전개될 때 현재의 여성들이 처한 보육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보육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매스컴에서의 남녀평등의 탈백락적인 소개와 최근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내의 출산 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남성도 육아의 몫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이 아동의 육아와 관련되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M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이 보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핑계' 줌으로 정책입안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보육은 여성들만이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여성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보육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는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으며,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 때로는 남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책임으로 논의되면서, 가정의 책임으로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육이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보육정책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여성내의 차이와 차별의 맥락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러한 관점이 때로는 당위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보육의 실질적인 책임을 가정의 몫으로 보고 보육을 아동을 위한 양질의 보육과 복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임을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그 보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위치나 그들이 수행해야하는 일의 측면은 비가시화 된다. 이러한 시각은 보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고, 정책적 지원 또한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국가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산층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그 보육을 담당하는 것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여성들로 할머니나 친척과 같은 가족을 활용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보육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인식이 보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일부분 보육에 있어서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적인 개입이 공보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그 대상에 있어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관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러한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장애아의 경우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실제 거의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육의 공공성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아의 보육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보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지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일정부문의 보육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과 인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행정담당자들도 지적하듯이, 보육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재정 면에서나 인력의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육을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가 보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여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보육을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공보육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확충을 통해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정책 입안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을 늘림으로써 전업주부, 맞벌이부부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인식에 기반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영역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보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시설 확충, 즉 공급자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의 입장은 일차적 국가의 책임을 시설확충에 두면서, 그 외의 책임에 대해서는 가정과 민간시설에 두어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책임회피는 일차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의 가정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국가의 보육 책임은 시설확충에 있다는 시각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나가는 글

보육정책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 정책과 서비스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정책의 하위 수단적인 인상이 강하고, 평등의 구현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육에 대한 부담감은 그들이 처한 제반 조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여성이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근로여성이든 전업주부든 '부담이 있다'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들 간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닌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이에 기반한 정책이란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국가의 행정 및 재정문제를 고려했을 때 보육시간의 차이, 보육기관의 다양화, 보육료의 차등 지급을 고려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수의 저소득층에게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채 나머지의 보육은 가정과 민간시설에 맡기고, 특히 중산층 전업주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농촌여성들은 보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정책 및 보육 서비스의 혜택이 모든 영유아와 모든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이 정립되기 위해 보육정책을 여성정책의 하나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여성노동력 활용, 국가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향후 정책이 수립되면서, IMF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목표인 여성노동력의 활용, 국가 경쟁력의 확보라는 차원이 아닌 여성의 현실에 기반한 보육정책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보육관(保育觀)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직위 분류제를 사용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므로 채용 이후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은 더 이상 여성노동력의 활용, 국가의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수단,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권리·아동의 권리·양성의 보육 권리·공보육의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논의는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 여성간의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VII. 참고문헌

단행본·정기간행물

- 김영주(1998), IMF 구제금융 이후 여성 고용형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0년, IMF 1년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종태(1993),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제2회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김태홍(200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판석·배득중·김영미·이수영(2000),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방안", 『정부와 여성』, 한국행정학회
- 김형식·최영신(2000), "보육정책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22집
- 도미향·이소희(2000),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감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5권 1호.
- 매일경제신문사(2002), "우먼코리아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박숙미(2002), "보육의 책임, 국가와 사회가 나눠져야 한다", 『복지동향』, 제42호.
- 박정선(1998),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 백선의·김교성(2001),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부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27집.
- 보건복지부(2001),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2), "200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2002),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1호
- 신혜섭·구미진(2001),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사·학부모의 요구조사", 『한국가족복지학』, 제6권 1호.
- 유희정(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의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영(1998), "탁아정책의 한·일 비교", 『연세여성연구』, 제3집.

- 이재경(1995).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한국여성학』, 제11집.
- 장필화(1995). "여성주의 윤리학 -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여성신학논집』, 제1집.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 장미경(1994).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 비추어". 『여성과 사회』, 제5권.
- 정금자(1993). "일본의 영유아 보육현황과 특성". 『일본학보』, 제32권.
- 정영애(1996). "시간제 노동과 성별분업: 시간제 노동 논의에 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 조애저(2000).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44호.
- 최재성·장신재(2001).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조명한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제도의 성격에 관한 소고". 『한국아동복지학』, 제 11집.
- 한국교육보사회(2001).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 허라금(1995). "윤리이론적 전통에서 본 여성주의 윤리학". 『여성신학논집』, 제1집.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 Collins, Patricia Hill(1999). "Producing the mothers of the nation: race, class and contemporary US Population policies".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Zed books Ltd.
- Werbner, Pnina(1999). "Political Motherhood and the Feminization of citizenship: women's activ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Zed books Ltd.
- 학위논문**
- 신덕순(1998).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한·일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신정혜(1995).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유선옥(2002). 포괄적 보육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이은희(2002). 성인지적 관점의 보육정책 형성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최인영(2000).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제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일간지

〈매일경제〉

2002-01-20. 보육체계 구축 절실하다

2002-03-06 1772자. [우먼코리아보고서] 육아부담 줄여야 'M커브' 해결

〈국민일보〉

2002-08-27. 2001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 한국여성 1인 출산 1.30명...선진국 보다 낮아
〈경향신문〉

2002-10-7, 10-14, 10-21. 보육이 국가경쟁력이다.

〈중앙일보〉

2002-10-10. 민간보육 지원 늘린다

2002-10-23. 똘자! 한국여성 2부. 보육, 여성만의 몫이 아니다

2002-10-25. 똘자! 한국여성 2부. 가사도 회사일·발상의 전환 필요

인터넷자료

영유아보육법,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ohw.go.kr/>

한일보육교류의 10년을 기억하며...

히구치 슈이치 · 일본 오사카, 노조미노몬 이사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11월 9일에 개최된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한일 보육교류는 본회와 일본의 일한보육교류연구회, 광주의 한일보육교류협회가 주최가 되어 지난 10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들어가며 >>

1992년 8월에 일본에서 17명의 보육관계자가 서울과 광주를 방문했는데 최근 10년에 걸친 보육교류의 첫 출발이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은 근대 역사에서 다른 입장에서 공존해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19년에 일본은 구미열강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동포국이며 오래 전부터 일본에 많은 귀중한 문화를 가져다 준 구조선,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이 역사는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해인 1945년까지 36년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방대한 부의 획득과 수많은 민중에 대한 비참할 정도의 억압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근대사는 한일 양국과 민중에게 전혀 상반된 양상을 가져다주었고 현재까지도 역사관과 가치관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전후 20년이 되는 1965년에 일본과 한국은 국교를 재개하게 되지만, 매우기 힘든 마음 속의 골은 여전히 현재까지 남아있다.

우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오랜 군사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1989년에 드디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화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장군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그 폭거에 항거한 민중은 한국각지에서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광주에서는 민중이 일시적으로 자치정부를 세웠지만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한국군이 군사력으로 탄압하였고 대부분의 민중이 희생되었다. 근대사 속에서 5·18광주항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획기적인 민중봉기가 바로 이것이다. 민주화운동은 그 후 군사력에 눌려 완전히 근절된 듯이 보였지만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민중들 속에서 활동을 계속해나갔고 서울과 광주에서는 노동운

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과 함께 보육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1989년에 민주화선언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었으며 민선대통령이 탄생했다. 사회전체에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이 남아 있었고 이와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육교사는 보육을 실천해나가고 있었다.

또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일이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자 전후의 분단국가인 한국?조선사람들은 '통일'을 슬로건으로 나라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들이 교류해 온 1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2000년에 광주항쟁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광주에서 20주년기념식을 가짐과 동시에 이 해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한 일이 기억에 새롭다. 나는 남북통일이 합의에 의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시대배경은 서술한 대로이지만 우리들이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보육교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의 근대역사를 배우겠다고 계획한 동기는,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나라가 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미국을 모방하여 과거 잘못을 범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할 것, 그리고 보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자는 점에 있었다. 특히 오사카는 제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2세, 3세 자녀들이 보육원에서 배우고 있다. 양국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들 보육원의 사명이다. 일본 사회속에서의 공생을 고찰하고 국제적인 관계속에서 공생을 내다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10년은 일본측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성과는 어디까지 거두었는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느껴지지만 지금까지의 교류를 통해 확실히 우호와 이해는 축적되었다고 생각된다.

첫번째 한국방문 >>

1992년 8월에 일본에서 17명의 보육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계기는 당시 세이와사회관의 관장이었던 김덕환씨가 세이아이엔 보육소와 노조미노몬보육원에 방한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제일한국인 2세이고 원래는 일본어로 된 이름이 있었지만 본명을 찾았고 모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여 몇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정에 밝아 첫 방한단을 위해 현지와 절충하여 안내겸 통역으로 크게 수고해주셨다. 세이와 사회관에서 김덕환씨와 직원 1명, 세이아이엔 보육소에서 에다모토 신이치로씨, 안도 목사와 직원2명,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히구치 슈이치씨와 직원3명, 영유아 발달연구소(현 어린이정보센

1993년 10월 10-11

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 타나카 아차코씨와 자치근로모모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일정은 8월6일(목요일)부터 11일(화요일)까지의 6일간이었고 첫째날은 서울에 도착 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의 빈민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보육 교사들과 교류환영회를 가졌다.

둘째날은 광주로 이동하여 전남대학교내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에 참배하고, 식민지시대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 식민지배자를 뒤 흔들어 놓은 학생들의 폐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빈민지역에 있는 장로파 발산교회의 소박한 예배당을 세내어 보육하고 있는 탁아소와 도담도담탁아소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직원과 교류했다. 그 뒤에 시설이 꽤 잘 되어 있는 YMCA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견학하여 오랫동안 교류를 이어나갈 광주의 보육교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첫 교류환영회를 가졌다.

3일째는 5718광주항쟁의 희생자가 안치되어 있는 망월동묘지를 참배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는 가슴이 아팠다. 특히 현재의 묘지는 개장되어 새롭게 꾸며졌지만 우리들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직 5718항쟁은 공식적으로는 반란이라고 간주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술한 대부분의 묘 가득 현화가 끊이지 않아 유족의 마음이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는 순천으로 이동하여 이 해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세워진지 얼마 안되는 새 시의회당으로 안내되어 지역주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순천의 민간보육 시설을 견학하였다. 다시 광주로 돌아와 민주화운동을 도맡아 온 지역활동가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4일째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독립기념관과 용인민속촌을 방문하여 근대 식민지시대의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

5일째는 서울의 탁아소 세 군데를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연세대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심포지움을 열어 보육운동에 대해 양국의 과제를 서로 제안하는 일이 이번 방문의 마지막 교류가 되었다.

전체적인 감상은 당시 민주화가 선언되었고 민선대통령이 탄생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서울이나 광주에서도 학생들과 경찰병력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쳤다. 또 한국은 이 시기 경제성장기에 있었지만 여전히 민중전체에게 부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라 특히 빈민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보육교사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다.

그 후에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놀랄만큼 빠르게 변모해 가는 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 때의 방문자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과 어울려 양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그 후에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물론 우리들의 교류사업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지만 새로운 만남(교류)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10년의 세월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첫 만남을 가진 후 지금까지 계속해 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해를 거듭하고 있다.

양국의 새로운 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보육연수교류의 시작 >>

1993년 1월 광주시의 활동가가 일본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생활협동조합의 상황을 연수하고 싶다고 세이와사회관 김덕환씨에게 의뢰해왔다. 이 때 광주의 보육교사 4명이 동행하여 일본의 보육상황을 견학, 시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4명(박말신, 주경남, 전미혜, 박신혜)은 방일단과 함께 행동했지만 세이아이엔 보육원과 노조미노몬보육원을 방문, 견학하고 또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류를 가졌다.

당시 한국의 탁아소운동은 보육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고 일본의 보육제도를 배워 참고로 삼고 동시에 일본의 보육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유아교육의 이론과 방법은 대부분이 구미쪽을 따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여 앞으로 스스로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을 창조해 나갈 과정에 있으므로 반드시 보육소 두 곳에는 실습하러 오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언어와 습관의 차이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협력하게 되었고 이 해 6월에 광주에서 2명의 보육교사가 내일하게 되었다.

기간은 30일간으로 했지만 관광비자로는 14일간밖에 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연수비자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좀처럼 허가가 나지 않아 일본연수가 가능할 지의 여부조차가 의심스러워졌다. 그러나 다행히 비자를 받고 2명의 보육교사(김영, 주경남)가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체재기간 중 숙박장소는 노조미노몬 보육원의 곤도 카요코 원장의 자택을 빌려 그 곳에서 통근하게 되었다. 김 영씨는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주경남씨는 세이아이엔 보육소에서 각각 실습을 받았다. 1개월이라는 긴 체재기간이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수를 쉬고 극도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계속해서 생겨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보육실습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연수?교류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 강제적으로 그런 행사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실습기간 중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국상호간의 언어의 장벽이었다고 생각된다. 정식 행사 환영회와 총괄회의 등에는 통역자를 초청하였고 서로의 의사가 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상 실습 중에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로 끝나는 일이

때 많았다. 특히 보육의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부분에서는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후 교류에 자신감을 갖게 했다.

한국에서의 보육연수 >>

두 사람이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고 일본측에서 방일수용사업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보육사를 연수보낼 수 있을까 하여 지탁연 광주탁아지역위원회에 타진했다. 그 결과 상당히 불충분하겠지만 어떻게든 허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가능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포함해서 방문했으면 했고, 1994년 5월에 광주로 일본의 보육교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기간은 노조미노몬 보육원의 우라노후지씨와 나카무라 미사씨가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의 한달로 계획했고 세이아이엔보육소의 쿠사바 가나코씨와 모리 이찌 요코씨 그리고 이번부터 새롭게 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세이와보육소의 니시다 켄이치씨는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의 15일간으로 했다. 체제기간 중 숙박장소는 전원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폐를 끼치게 되었지만 남편분의 이해를 구해 박말신씨의 자택을 개방해주었다.

일본에서 연수길에 오른 5명은 앞서 있었던 광주의 보육교사와 거의 같은 체험, 경험을 하였고 언어의 장벽에 힘들어하면서도 대부분의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보육시간이 끝난 후의 긴 회의는 상당히 심신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이 때의 연수교류를 기회로 서울과 광주를 방문하여 5월18일에 매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 사업에 참가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보육교류에 대해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 영유아발달연구소장인 스즈키 쇼조씨가 저술한 '지역보육운동'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간행되었고 그 기념으로 강연을 부탁하였다. 또한 스즈키 쇼조씨의 제자인 호리 세이지(堀正嗣)씨가 보충강연을 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약 10여명이 방한하여 광주투쟁의 의의와 보육운동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스즈키 쇼조 선생님은 심포지움 후의 저녁만찬환영회에서 전쟁중에 소집된 전쟁과 일본인으로서 역사의 진실이 가려져 식민지시대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사죄받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지속적인 보육연수교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보육운동은 가일층의 민주화를 호소해나가고 또 보육의 제도화를 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탁아소연합회의 힘만으로는 한국 정부를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넓게 민간보육시설과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한 것이 보육교사회였다. 많은 보육시설이 운영되

고 한국의 경제성장도 급속히 진행되어 1995년에는 일본의 보육현황을 견학하는 방일투어가 활발히 이루어진 해였다.

우리들의 보육교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5년에는 한국보육교사회로부터 방일연수단을 받아들였다. 방일연수단 멤버는 한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전 지탁연의 사무국장인 새날 어린이집의 신현희씨(세이아이엔 보육소 실습)를 단장으로 부산에서 강숙진씨(세이아이엔 보육소), 군산에서 위양자씨(노조미노몬 보육원), 광주에서 김경아씨(노조미노몬 보육원), 박화명씨(세이와 보육원), 서울에서 서은희씨(세이와 보육원) 6명이 방일하여 10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일의 실습, 교류를 가졌다.

또한 다음해인 1996년에는 세이아이엔 보육소가 원사를 신축하게 되어 당분간 파견교류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3명(아즈마 카즈코, 오카자키 카나, 아사오 카 아키요), 세이와 보육원에서 1명(시마즈 카즈요)이 서울(새터 어린이집)과 인천(햇살어린이집)의 보육시설 두 곳에서 보육실습을 했다.

1997년에는 한국측이 2주일의 연수로는 기간이 짧아 성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수 를 희망하는 제안이 나왔고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의 3개월간 장기연수를 실시했다.

이코노구에 집을 빌려 자취생활을 하면서 실습받았다. 방일단은 광주에서 2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박화명씨가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부산에서 박찬주씨가 세이와 보육원에서, 수원에서 지연씨가 아이신보육원에서 서울에서 은 이현경씨가 세이아이엔 보육소에서 각각 보육실습을 실시했다.

1998년의 공백 >>

이와 같이 상호교류해 온 일한보육연수교류사업은 1998년에 공백기에 들어간다.

이 교류를 주로 맡아해온 세이아이엔 보육소는 이 해 보육원사의 전면개축 공사에 들어가 도저히 그 이외의 사업에 힘줄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

또 마찬가지로 노조미노몬 보육원도 창립50주년기념사업으로서 8월에 우리동네공부방의 아이들을 열흘 간 홋카이도에서 장기 캠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교류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1년간의 공백기간은 사실상 다음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 2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개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보육연수교류의 재개 >>

2년간의 교류공백기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각각 보육원과 조직내에서 크게 변화가 생겼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지금까지 한국보육교사회에서 몸담아 온 사람들이 세대교체를 하여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측에서도 인원구성이 바뀌고 조직에도 변화

가 생겼다.

교류의 출발점이었던 광주 보육시설과 서로 연락을 취하여 교류의 재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9년 9월에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그때까지 교류에 종사해 온 직원4명(히구치 사치코, 우라노 후지에, 아즈마 가즈코, 김혜영)을 광주에 파견하여 이 해 교류체계를 서로 확인했다.

1999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전남지부에서 3명의 보육교사(이순희, 박미영, 김정숙)이 파견되어 방일했고 노조미노몬 보육원에서 연수를 재개하게 되었다. 세이아이엔 보육소는 교류사업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조미노몬 보육원의 교류사업에 협력해주었다.

2000년의 교류사업 >>

2000년 2월에 노조미노몬 보육원은 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그 식에 광주에서 3명(박말신, 김철순, 최현)이 대표로 참석하여 축하를 받았다.

그 답례로서 이 해 4월에 치루어진 도담도담어린이집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노조미노몬 보육원은 광주에 이사장 야마오카 모리오씨, 히구치 슈이치씨, 김혜영씨 3명을 파견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00년 5·18은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한국정부의 주최로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치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광주와의 보육교류, 연수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광주의 기념식,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서로 새롭게 조직을 재건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일본, 오사가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회장 쿠와바라 시게오(桑原重夫)씨)로 명칭하고 한국측은 한일보육교류협의회(회장 박말신)라 명칭하기로 했다. 5월17일부터 19일까지 13명이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20년을 회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이 되어갈 것인지를 숙고해 보았다.

주경남씨는 보육사업에서 보다 넓은 견지에 서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응하게 되었고 세이아이엔보육소에서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연수를 받았다.

또 한일보육교류협의회는 9월5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다양한 시설을 시찰, 견학하기 위해 방일했다.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교류연수단 8명이 광주의 어린이집, 우리동네공부방 세 군데에서 보육실습을 받음과 동시에 이번 기회를 빌어 보다 폭넓은 주제로 한국을 방문하여 배울 기회를 마련했다.

주제는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의 전통놀이' '한일 자녀양육관의 차이' '장애아동의 보육' 등이었다.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와의 교류재개 >>

2001년 2월에 일본 협회회의 대표 쿠와바라 시게오(桑原重夫)씨 이하 4명이 비공식적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격절했던 한국보육교사회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 현재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시설 단위의 조직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고 보육연수와 정보교환을 주 활동으로 삼고 있다. 보육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직을 담당하는 성원이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교류에 대해 거의 계보가 남아 있지 않아 일단은 일본의 보육정보와 일본측의 보육원을 견학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보육교사회 공동대표인 이윤경씨와 사무국장인 이경녀씨가 방일했다.

그리고 이 해에 예정되어 있던 일본으로 파견할 한국교류연수단에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 참가하게 되었다. 서울, 부산에서 3명이 추가되어 모두 7명의 보육교사가 10월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방일했다. 또한 일본측도 수용보육원이 한 곳(아이신 보육원)이 더 추가되었다.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 >>

1992년 8월에 시작된 한일 보육교류사업은 2002년까지 1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의미를 서로 확인하고 또한 앞으로도 교류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목표로 2002년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를 중심으로 한 한일보육교류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의 공동주최로 11월에 서울에서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다.

2002년 2월에 일본측 준비회는 서울과 광주를 향해 떠나 그 기념행사와 2002년 일본에서 보육교류연수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11월에 치러질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일상호간의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한국보육교사회	일본보육교류연수협의회	광주교류연수단	일본교류연수단

연표로 한일 보육 교류 10년

연도	월	한국방문(일본측)	일본방문(한국측)
1992	8	한국방문보육자 등 교류연수단 총17명(서울, 광주방문)	
	9		영유아발달연구소창립20주년 기념식 '아시아보육교류심포지움' 패널리스트로 최현숙 내일(來日)
1993	1		지방자치, 생활협동조합, 보육시설시찰 견학 (박말신, 천미애, 주경남, 박신애)
	6		제1회한일보육교류 연수 광탁위 소속 보육교사 2인 일본 연수
1994	2	지속적인 상호교류사업사업자협의회 5명 광주파견:미즈카미 신야, 에다모토 신이치로, 히구치슈이치, 곤도 카요코, 김덕환	
	5	① 제2회 한일보육교류 연수 일본 보육사 5인 한국 연수 ② 광주민주화운동기념집회참가 ③ 서울, 한일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움 강연:스즈키 쇼조, 호리세이지(堀正嗣)	
1995	10 & 11		제3회 한일보육교류 연수 지탁위 소속 보육교사 6인 일본 연수
1996	6- 9		일본방문개인보육, 일본어연수참가 : 최정난(세이아이엔 보육소 연수)
	6	① 제4회 한일보육교류 연수 일본 보육사 4인 한국연수 ② 한국방문연수단 격려, 광주시찰방한단: 히구치 사치코, 김덕환외 2명 (서울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주최 강연회: 강사 김덕환)	

1997	5- 7	제5회 한일보육교류 연수 지탁위 소속 보육교사 4인 일본 연수
	6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일본 연수 및 강연회 '일본의 혼합보육' 강사: 에다모토 신이치로
	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
1999	9	한일보육교류재개준비회의 광주방문: 히구치, 김혜영, 아즈마 가즈코, 우라노 후지예
	11	제6회한일보육교류연수 한일보육교류협의회 소속 보육교사 3인 일본 연수
2000	2	노조미노노 보육원 창립 50주년기념식 참석: 박말신, 김철순, 최병홍
	4	도담도담어린이집 10주년기념식참가: 아마오카 모리오, 히구치 슈이치, 김혜영
	5	광주민주화운동20주년기념집회참가방한: 12명참가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재편 (회장:쿠와바라 시게오(桑原重夫)) 한일보육교류협의회 재편 (당시 회장:전윤희)
	7	① 세이아이엔 학습회 강사: 주경남 ② 7·19 「한일보육교류의 의의와 과제」 심포지움 개최 패널리스트: 에다모토 신이치로, 히구치슈이치, 주경남
	9	한일보육교류협의회 일본의 복지시설 견학, 방문 참가자:전윤희 외 7명
	10	① 제7회한일보육교류연수 일본보육사 6인 한국연수 ② 한일보육교류 심포지움 '일본의 보육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강연:쿠와바라 시게오, 에다모토 신이치로, 모리이치 유우코, 카와바다 케이코, 스기하라 아케미, 이영미, 나가세 미즈코, 김혜영, 엔도 아스요 등 13명

2001	6	한국보육교사회와의 교류재개에 대한 협의 및 일본 보육시설 견학 :이윤경 공동대표, 이경녀 사무국장
	10	한국보육교사회 교사연수 강연 강사: 히구치 슈이치 '일본의 장애통합보육과 자녀양육지원센터'
	10~ 11	① 제8회한일보육교류 연수 한국보육교사회 소속 3인, 한일보육 교류협의회 소속 5인 일본연수 ② 보육연수격려, 보육시설견학단 전윤희 외 9인
2002	2	보육교류10주년 기념행사준비회의 방한자:쿠와바라 시게오, 에다모토 신이치로, 히구치 슈이치, 김혜영 등 7명 한국보육교사회:이윤경, 이경녀 한일보육교류협의회: 전윤희, 최병홍, 이승희, 박말신
	9	세이아이엔 보육원 장애아보육30주년 기념식 참가 방일 참가자:이윤경,박말신, 주경남
	10~ 11	① 제9회한일보육교류연수 일본보육사 7인 한국연수 ②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행사 일시:11월 8일9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11월 9일에 개최된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에서 낭독한 공동선언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일보육교류 1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과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축하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산과 강조차 모습이 변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10년이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보육교류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룬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보육교사들은 서로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경험과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말과 음식, 생활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10년이 넘도록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교류연수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교류는 연수참가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헌신성,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은 서로에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겨우 지난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일본 보육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열정과 패기를 한국의 보육시설에서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서로 다를지 모릅니다. 불러주는 노래도, 읽어주는 동화도, 보여주는 그림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똑 같습니다. 그 마음이 '여기'와 '나' 이외에도 있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이도 일본의 아이도 세상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고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격려받고 실패를 도전으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 배워 나가기 위해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의지와 열정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모든 어린이들은 민족, 종교, 언어, 성 및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즐겁고 풍성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어른은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이유로 장애아를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나 사회에서 소외시키면 안 되고 모든 아이들이 서로가 우정을 가지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1. 아이들은 각각의 개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1.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 생활양식을 배우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권리와 다른 지역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권리가 있다.
1. 보육교사는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보육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려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가 사는 곳은 달라도 지금, 우리는 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리로 이끈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맙시다.

한일보육교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02년 11월 9일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

한일보육교류협의회

한일보육교류 10년

염소, 토끼와의 만남에서 이별까지

허경남 · 서울, 행복한우리어린이집

환영회 >>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준비로 바쁘고 가슴 설레는 하루를 보냈다. 초롱초롱반에서 주워온 솔방울과 색종이로 꽃을 오려 예쁜 솔방울 목걸이를 만들었다. 오색 풍선을 붙여 문앞에, 터전 안 이곳저곳에 달아 환영의 뜻을 표현하였다. 교사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까지...

드디어 연수단이 도착하였다. 우리와 비슷하나 어딘지 모를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인사를 주고받고 우리가 준비한 보따리들을 한가지 한가지씩 풀어놓았다. 다행히 음식도 맛있게 먹는 듯했다.

터전생활 시작 >>

몇일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일본어 인사를 연습하였다. 키야마 토모오, 오우치 유리코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과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 하며 터전으로 향했다. (함께 서울에 온 후치노 노부코 선생님과 다치바나 요시히로 선생님은 이화어린이집에서 연수를 받는다) 늘 그랬듯이 아이들은 책상에 삼삼오오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일본의 연수 선생님들도 간식을 먹고 있었다. 간식후 전체 차모듬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친구들은 환영의 뜻으로 노래를 불러 주었고, 아이들과 두 선생님의 별칭을 지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지어 오셨다. 키야마 토모오 선생님은 '염소', 오우치 유리코 선생님은 '토끼'.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 피식 웃음이 났다. 염소는 쿵쾅쿵쾅과 토끼는 알롱달롱과 지내기로 하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통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토끼, 랫츠 산토" 알아 들은 듯 따라 나왔다. 은행잎이 눈처럼 쌓여 있기에 나뭇잎 눈싸움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며 재미있는 오전 한때를 보냈다. 그 시간 염소는 쿵쾅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놀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양치질하고 청소를 끝내고 잠깐의 모듬을 하고난 뒤 꿈나라로 향했다. 여독이 풀리지 않은 듯 토끼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앞으로의 짝 짝인 일정동안 잘 도와 줘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서울의 연수 일정

- 10월 28일 - 서울 도착, 한국보육교사회 소개, 집풀기, 행복한 어린이집에서의 환영식
- 10월 29일 - 행복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노언이네에서의 저녁식사 초대
- 10월 30일 - 규진네, 민주네, 승환네 저녁식사 초대
- 10월 31일 - 건강교사모임 참관
- 11월 1일 - 이화 어린이집에서의 전통교육 참관, 국제유아교육전 관람, 중간 평가회의
- 11월 2일 - 지요아빠와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 동등 관광, 한국보육교사회후원의 밤 참가
- 11월 3일 - 동대문시장, 인사동, 경복궁 관광 및 쇼핑, 예지네 저녁식사 초대
- 11월 4일 - 솜사탕네 저녁식사 초대
- 11월 5일 - 이안네 저녁식사 초대
- 11월 6일 - 행복한에서의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 11월 7일 - 이화에서의 총평가회 및 환송회
- 11월 8일 - 한일보육교류 10주년 세미나 참석
- 11월 9일 -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참석
- 11월 10일 - 용인 한국민속촌 관광, 일본으로 출국.

기억에 남는곳 >>

서대문 형무소

일본 선생님들에게 좋은 곳,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남아 있는 저 깊은 곳의 무언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회의에서 긴급 결정을 하여 나들이 차원으로 쿵쾅, 초봉과 같이 서대문 형무소를 가기로 하였다.(많은 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 나중에 안 것이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일본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을 때 조금은 용이리가 풀린 듯 했다.

찜질방과 포장마차

11월 2일 한일보육교사회후원의밤 행사를 마치고 지요 아빠, 코스모스, 다람쥐, 다람쥐 남편, 일본 선생님 네분 이렇게 성수동의 찜질방에 갔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 했지만 원 초로 돌아가니까 더욱 친할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뜨거운 곳에 들어가 서로에게 안마도 해주고 같이 눕고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남자들은 서로 때까지 밀어주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목욕을 끝내고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다. 먼저 고픈 배를 채우느라 우동을 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혔다. 남자들은 이미 소주에 달요리(?)를 먹고 있었다. 염소는 원래 술을 못마시지만 다치바나 요시히로는 그동안 자제해 왔었는데 지요 아빠의 큰 도움(?)으로 본 모습을 볼수 있었다.

토끼(오우치 유리코)의 연수 보고 >>

교사와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여유있게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선생님에게 놀라웠고, 아이들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는것 같아 좋았다. 식사량을 조절한다든지, 수면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산보거리까지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았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는 어린이집이다. 교사와 아이들간의 강한 신뢰감을 볼수 있었다. 행복한 특징은 보호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수 목적중의 하나는 한국 여성의 육아관, 결혼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일본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남자 선호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끈질긴 남성 위주의 사회인 것 같다.(남자 아이들 돌사진 찍을 때 다 벗고 찍은 사진에 놀랐다). 유아교육전에 가보니 유아들의 조기 영어 교육 및 영어 교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며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행복한 어린이집은 자연 교육,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이어서 많은 공감의 간다. 아이들의 놀이방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섞여 있고 또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자주성을 존중하므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것 같다.

느낀점은 자신도 보육원에 돌아 가면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않고 여유있게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 왔는데 의사 소통이 안돼 답답했는데 미안하고, 행복한 우리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많이 친절하고 교사들끼리 친한 것 같다. 일본에 돌아가서 실습생들과 후배들에게 배려 많이 하겠다.

염소(카야미토모오)의 연수 보고 >>

첫 인상은 가정적인 보육원이어서 느낌이 좋았다.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해 관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였다. 교사는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 해주는 것 같다.

인상적인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자기일은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것. 점심이나 간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유기농 음식을 먹이는게 부러웠다.

보육실(방)이 네모 모양이어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 있을 때 다칠까 우려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 놀랐다. 부모님과 간담회 때도 느낀 것이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에 놀랐다. 청소하는 것도 어려우실텐데 잘 지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부모와 교사간의 마찰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

전통놀이 지도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신이 있는 곳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개인차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반일 감정이 낮아서 안심이고 일본에 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한국인들의 친절과 상냥함에 기쁘고 감사하다. 연수에 참여해서 기뻐다.

연수팀을 보낸후 >>

짜여진 행사와 저녁초대와 각종 인터뷰(YTN, 중앙일보, 경향신문, 우먼타임즈)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선생님들이 떠나고, 왠지 터전이 쓸쓸하고 너무 한적해 보였다. 말이 안 통해 즐겨 찾던 사전도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보노보노의 "맛있게 드셨어요" "많이 드세요" 서툰 일본어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도 더 이상 토끼와 염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화 어린이집에서는 헤어지고 난뒤 대성 통곡을 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빈이만 조금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다. 이 현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아이들은 늘 많은 어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어른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듯 싶다.

우리는 환송회때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들, 낙엽을 코팅하여 만든 왕관, 재잘들의 사진 카드, 교사들의 뜻깊은 선물들과 뽀뽀세례를 해주었다.

이 글을 통해 연수 기간동안 잠자리 제공해 주신 예지네, 마음도 몸도 바빴던 호호 엄마, 시어머님과 함께인데도 저녁초대 해주신 솜사탕, 지요아빠, 노연네, 통역하랴 저녁초대하랴 바빴을 이안네, 그 밖의 조합원님들, 교사분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본에게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모두 애국자가 된것입니다. 짹짹(우리모두 수고한 의미의 박수소리).

사건은 정무소



2주간 서울과 광주에서 보육연수를 받으신 일본의 보육사 선생님들입니다.

한일보육교류 10년

사진으로 보는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



○ 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사전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보육교사들이 동대문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우리의 전래놀이와 노래 이외에 일본의 신체놀이도 배웠답니다.

○ 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사전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사설장이 모여 장애통합과, 영아보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기념식의 여는 행사로 진행된
넒다리 밟기. 아이들이
어른들의 몸을 밟고 입장하
는 것은 보육교사는 아이들
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뜻
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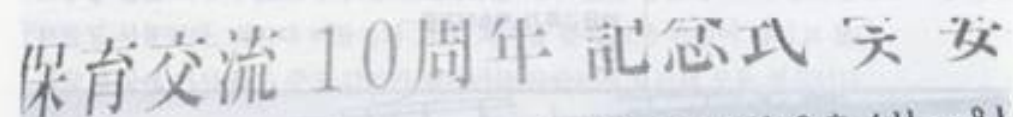
한일보육교류 10주년의 신증인 광주의
박말신 선생님, 감격에 겨워 눈물의
축사를 하셨습니다.

광주 도담도담 어린이집의 이승희 선생님과 오사카 세이이엔 쿠사바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이승희 선생님은 새신부처럼 고운 모습
으로 독부러지게 사회를 보셨습니다.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축하공연으로 전래 놀이와
노래, 그리고 사물놀이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공연을 준
바해 주신 이상옥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멀리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축하공연으로 멋지고 신나
는 춤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정미 샘의 딸인 재경이도
공연에 한 몫 했지요.



여성플라자국제회의장 일시 : 2002년 11월 9일 오후 4시 ~ 8시



○ 서울에대에 재학중이고 우리 회의 자료회원인 이화어린이집 김경순 선생님의 딸이기도 한 오진경 학생의 단소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 순간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 한일보육교류 10주년을 축하하려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앞으로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보육교류가 계속되기를...



아이들과 함께 만든 생태어린이집 - 텃밭 가꾸기, 건강 먹거리

아래의 글은 2002년 본회 부산지부에서 녹색도시부산추진협의회 후원으로 실시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당선 실천사례로 '지역과 연계한 생태환경실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실천활동 교육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월별 텃밭 가꾸기

4월

두구동 화훼단지에서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모종을 사서 심었다. 모종을 잘못 다루어 오이가 부러지고 가지를 너무 길게 심는 등 아직 농사일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서툴렀다. 거기다 비둘기가 고추, 가지를 뽑아 모종 손실이 많기도 했다. 가끔 옥상에 가서 물도 주고 감자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보는데 모두 열심히다.

6월

감자, 고추, 방울토마토, 호박 등이 열려 있고 상추, 당근도 무럭 무럭 잘 크고 있다. 아이들은 거의 매일 옥상에 가자고 하면서 고추도 따고 물도 주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감자는 시범적으로 한 뿌리 캐어 크기 분류도 해보고 보고 그리기도 해 보았다. 감자를 관찰 한 후 그려서인지 모두 잘 그렸다. 감자를 깎아서 찌기놀이도 하고 작고 귀여운 감자들을 삶아서도 먹었다. 고추를 따서 다른 야채들과 섞어서 야채볶음밥을 하고 고춧잎 나물도 해주었더니 우리가 키운 거라고 모두 잘 먹었다.

7월

감자를 캐다. 사실 감자 캐는 시기를 이론상으로 '하지'라는 걸 알았으나 감자알이 다 차지 않은 듯 해서 하지를 훨씬 넘어서 캐더니 그 뒤 고구마 심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감자는 기대한 것 보다 수확이 적었지만 수확의 기쁨은 엄청났다. 그런데 그 수확의 기쁨도 모두가 누린 것은 아니다. 감자 캔다고 옥상에 가서는 해수, 정주만 열심히 온비, 채윤이는 "안 할래요" 하며 논다고 감자 캐는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감자를 캔 후 다음 작물을 위해 밭을 일구면서 방과후 반 한울이와 해인이가 농부의 노고를 알겠다는 듯 "농부 아저씨들은 정말 힘들겠다"고 내뱉는다.

바로 그것이었다. 교사들도 가끔 '왜 이렇게 힘들고 할 줄도 모르는 텃밭 가꾸기를 한다고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하지만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아이, 어른 모두가 흙의 소중함,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 때 텃밭 가꾸기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감자를 캔 후 고구마 모종을 사서 심었다.

8월

고추, 당근, 가지를 수확하고 밭을 갈아 김장 무, 배추씨를 뿌렸다.

그날 해수가 등원 해 당근을 재연이와 함께 캐다. 재연이는 호미로 땅을 파자 지렁이가 나온 다면서 그만 두는데 해수는 "지렁이는 좋은 동물이다" 하면서 계속 당근을 캐다.

3일 만에 싹이 나서 아이들과 물을 주면서 생명의 경외감을 느꼈다.

9월

아이들은 각각 고랑을 나누어 해수밭, 정주밭, 온비밭, 채윤이밭으로 명명하고 자기 밭에 열심히 물도 주고 주문도 외운다.

"순무야, 순무야, 달콤하게 자라렴. 단단하게 자라렴."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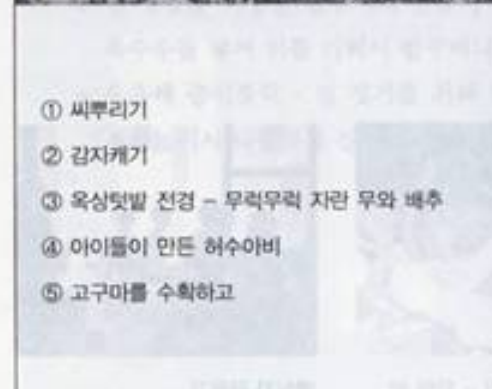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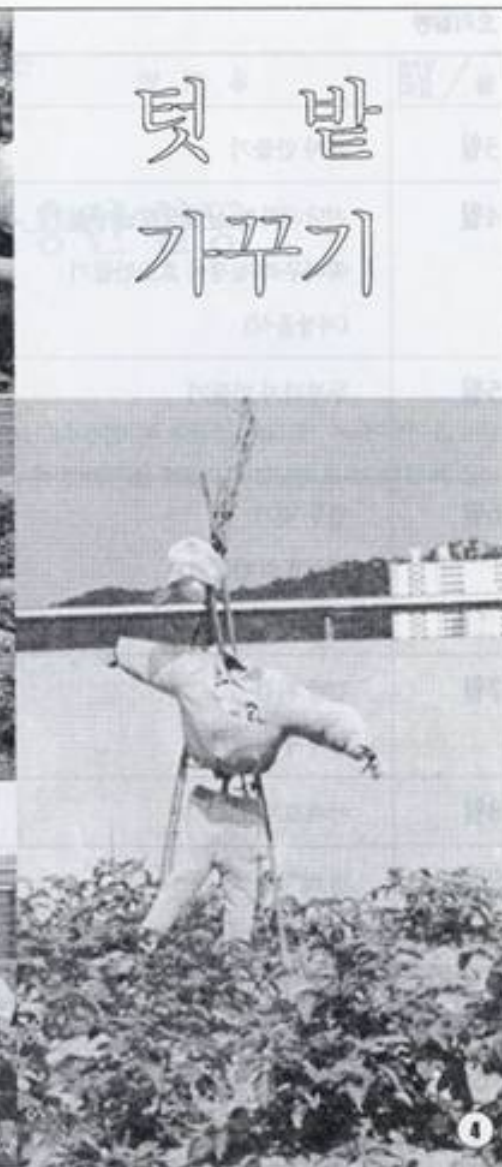
텃밭에 전혀 관심이 없던 채윤이가 요즘은 텃밭에 가자고 하면 가장 먼저 따라 나서고 물도 열심히 준다.

10월

고구마를 캐다. 심는 시기가 늦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고구마는 알이 굵었다.

고구마를 캔 후 즉석에서 꺾아 맛을 보았는데 맛은 별로였지만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텃밭 가꾸기



- ① 씨뿌리기
- ② 감자캐기
- ③ 옥상텃밭 전경 - 무럭무럭 자란 무와 배추
- ④ 아이들이 만든 허수아비
- ⑤ 고구마를 수확하고

요리활동

월	반별 요리	유 아 반	방 과 후 반
3월		피자 만들기	만두 빚기
4월		진달래화전(삼월삼짇날)만들기 쫄면무리 절경이 효소만들기 (저장음식)	진달래화전(삼월삼짇날)만들기 만들레 효소 만들기(저장음식)
5월		두부과자 만들기	햄버거 만들기 약과 만들기
6월		만두 빚기 매실효소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잡채 만들기 매실효소 만들기
7월		김밥 뒤집 감자 구워먹기	수박화채(초복) 만들기
8월		야채꼬치	콩나물밥 만들기
9월		컵 케익 송편빚기	부꾸미 만들기 송편빚기
10월		도넛 석류효소 담기 수세미 효소 담기	호박죽 만들기 석류효소 담기 수세미 효소 담기



잡채 만들기 - 방과후 반



절경이 효소 만들기 - 유아 반



매실차 만들기

폐품을 활용한 활동

아래의 글은 2002년 본회 부산지부에서 녹색도시부산추진협의회 후원으로 실시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당선 실천사례로 '지역과 연계한 생태환경실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실천활동 교육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활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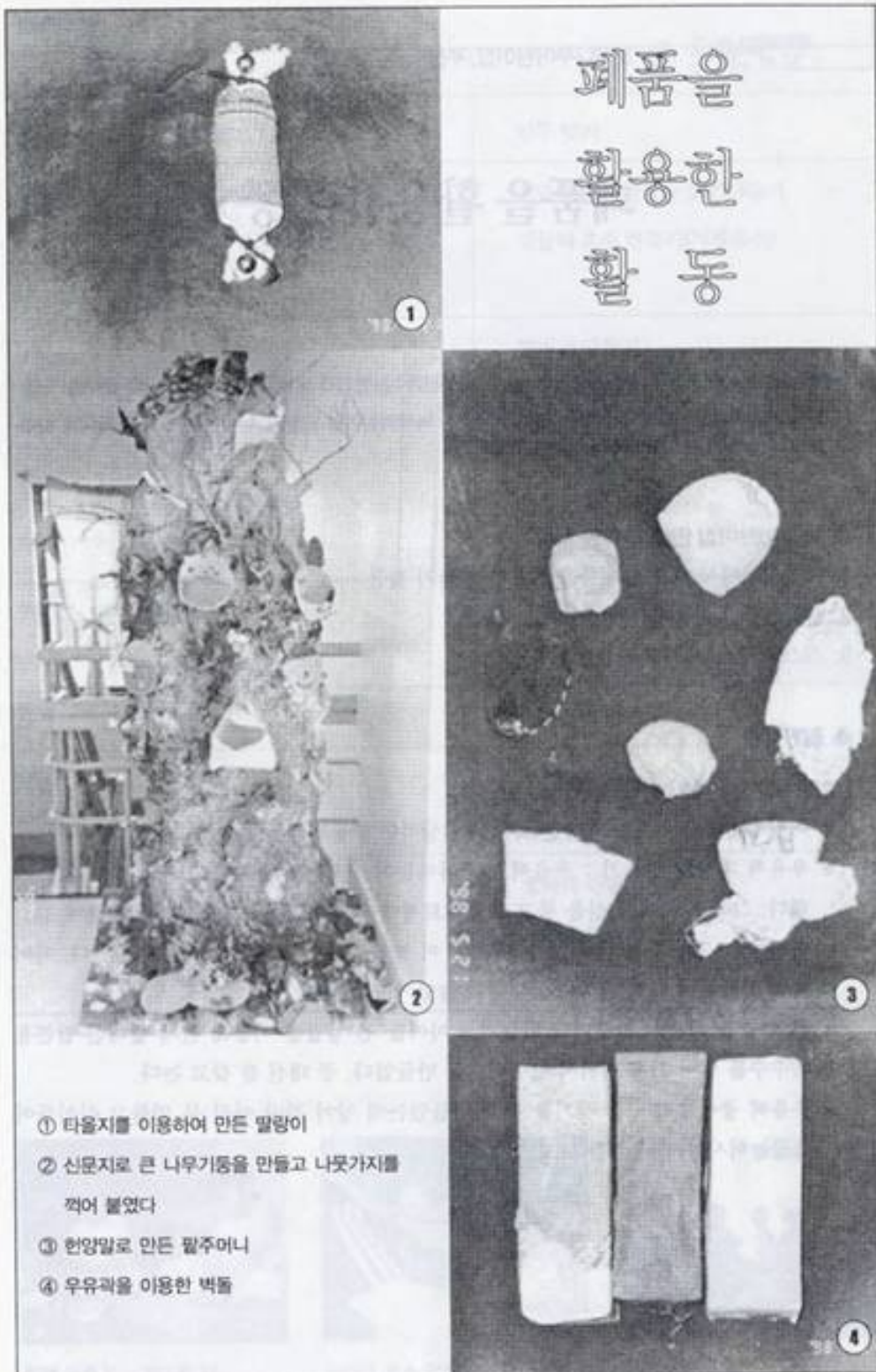
1.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폐품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
2.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시장놀이 활동
3. 스스로 만드는 자연물 놀잇감

♣ 활동내용

1.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폐품을 이용한 만들기:

-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폐품을 이용한 일상적인 만들기를 하고 있다.
- 우유팩 자동차 만들기 : 우유팩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차이콥도 정했다. 그리고 차에다 실을 묶고 요구르트병에 연결 하였다. 실을 요구르트병에 감으면서 하는 자동차 경기 시합을 하였다. 이 놀잇감은 장 기간 이용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다.
- 헌 양말을 이용한 팔주머니 만들기 - 아이들 헌 양말을 이용해 안에 팔대신 팔콘용 옥수수를 넣어 위를 기워서 팔주머니를 만들었다. 공 대신 잘 갖고 논다.
- 우유팩 종이블럭 - 집 짓기를 위해 만들었는데 양이 작아 아직 못 만들고 아이들이 소꿉놀이시 다양하게 잘 갖고 논다.

폐품을 활용한 활 동



2.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시장놀이 활동

아이들과 함께 시장놀이의 종류와 품목을 정하고 가정에서 보내오는 재활용품(헌 옷, 신발, 장난감, 악세사리, 책)과 나머지 몇가지 품목(야채, 과일, 과자)으로 바자회 형식을 이용한 시장놀이를 하였다. 자기는 잘 갖고 놀지 않지만 시장에 팔면 다른 애들은 새롭기 때문에 잘 갖고 놀고, 헌옷도 동생이 있는 아이는 사서 동생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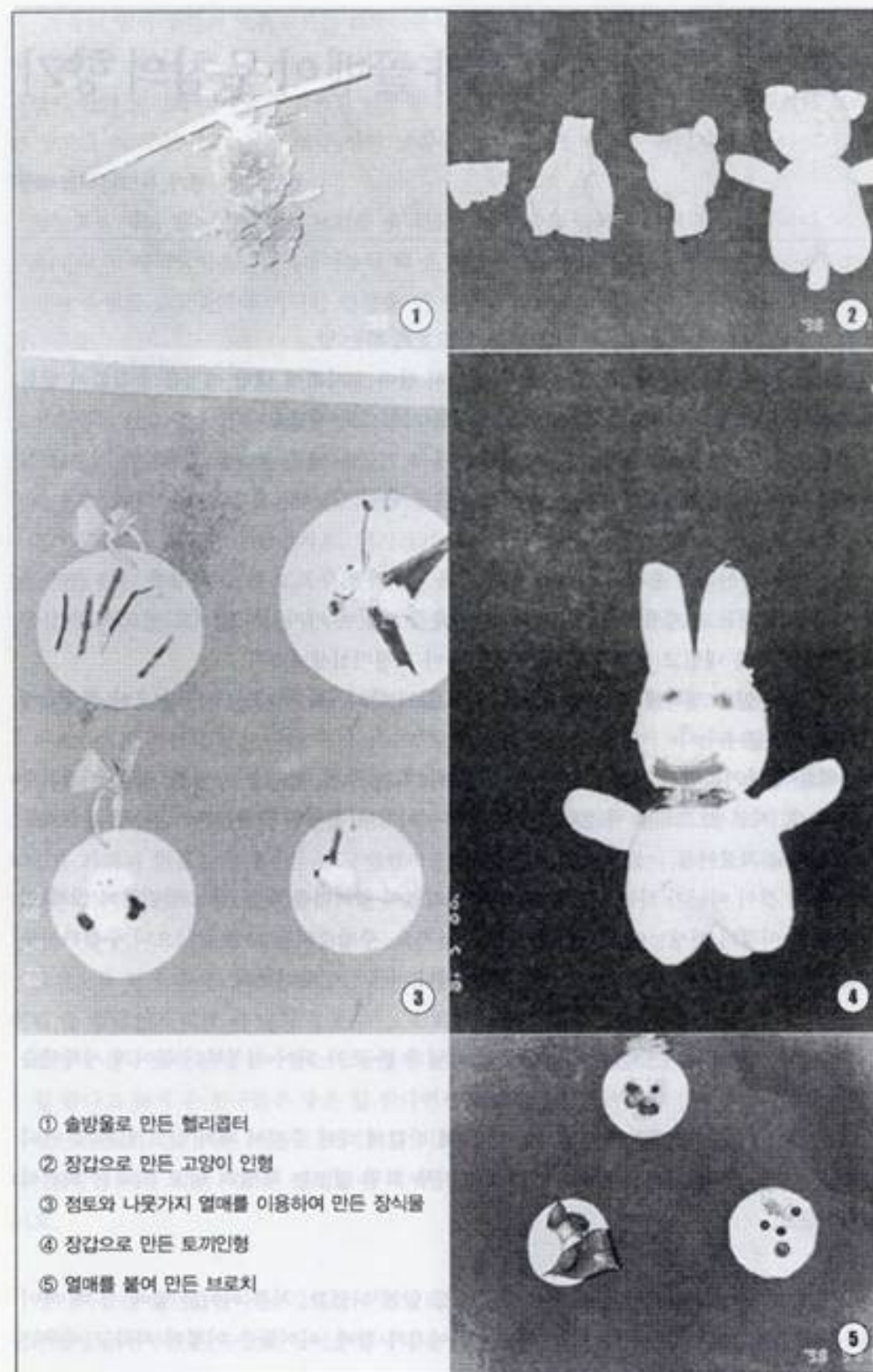
재활용품 장난감 시장놀이



폐품활용한 장난감의 시장놀이

3. 스스로 만드는 자연물 놀잇감

- 장갑인형만들기 : 6, 7세 아이들과 흰 장갑으로 토끼와 고양이를 만들었다.
장갑에 도안을 먼저 그려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바느질을 하여 완성했다. 완성한 장갑인형으로 소꿉놀이도 하고 선물로도 주면서 아이들의 성취욕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 열매를 이용한 브로치 만들기 : 가을이라 열매가 많아 나들이 가서 주워온 열매를 실리콘으로 붙여 브로치를 만들었다.
- 점토와 자연물을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 - 점토와 나뭇가지, 열매, 나뭇잎 등을 이용하여 벌레, 사람 등을 만들어 벽 장식물을 만들었다.
- 낙엽으로 모자 만들기 - 굴거리 나뭇잎을 가는 나뭇가지로 묶어 인디언 모자와, 왕관 등을 만들었다.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 솔방울, 조개, 조약돌, 도토리 등으로 자유롭게 만들기를 하였다. 여자 아이들은 조개로 목걸이를 만들고, 조약돌로 물고기 잡는 낚시대를 만들었다. 남자 아이들은 솔방울로 헬리콥터를 만들고 우유팩과 도토리로 화살을 만들었다.



훈제치킨과 골뱅이 무침의 향기

이교진 · 경기, 동그라미놀이방

11월 2일, 드디어 보육교사회 기금 마련 일일호프 하는 날.

1주일 전부터 친구들 중심으로 티켓을 열심히 팔아 교사회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쉬는 토요일을 느긋하게 맞이한 후에 서울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인지, 아니면 겨울의 기운을 담은 초가을 쌀쌀함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 주었고, 여유있는 걸음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 갔는데.....

안은 매우 분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 칼을 다른 손에 무와 야채들을 다듬고 계시는 선생님과 마른 안주를 쟁반에 가지런히 얹치고 랩으로 쌓는 손길, 무거운 배를 내밀고 상주를 썰고 계시는 하마 고정미선생님까지.

늦게 왔나 싶은 생각에 얼른 앞치마를 쟁겨 입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미리 오신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하는 연화샘, 갈래머리의 금주샘, 듬직한 보경샘, 김밥을 쟁겨주신 선주샘, 지민샘. 그리고 주점의 우두머리(·) 이경녀 선생님 모두 일찍 나와서 일일호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늦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에 소리없이 앞치마를 찾아 입고 불편하게 앉자 있는데 캡틴 이경녀 선생님이 일거리를 찾아 주셨지요. 주방준비는 대충 끝났으니 주점위치를 알리는 화살표를 붙이라고, 차리리 일이 떨어지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화살표와 스카치테이프를 들고 이선주 선생님과 한 조가 되어 시청부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주 선생님은 늘 편안한 인상으로 만날 때 반갑게 대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몇 안되는 회원이었습니다. 사실 신입회원이라 경기지부 회원 말고는 특별히 알고 지내는 회원이 없었거든요.

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샘의 아들 홍준이도 알게 되었고, 처음 아이들 앞에 설 때 아이들은 모두 평등하다 라는 생각으로 대하신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배우는

지, 보육의 일이 힘들어 보육교사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소모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보육일지의 개념이 아닌 일기로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보라는 충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샘이 보내주신 일기장에 매일은 아니지만 '돌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다음 임무는 사진 전시였습니다.

80년대 말 지역탁아소연합회에서부터 해 온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

당시 유행한 뽀글파마와 커다란 안경을 낀 통통한 얼굴의 여러 선배님들은 많은 일을 하셨더군요.

처음에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후에는 보육정책을 안정화시키고 개선해 나가고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사진의 양이 많아 벽이 모자라 다시 붙이는 동안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홀 안은 금새 북적이고 있었지요. 여기저기 주문하는 소리에, 잔 부딪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웃는 소리~~~

아는 회원도 없고 나를 찾는 손님도 없고 하니 앉자 있을 곳이 없더군요.

마침 카운터 보시는 선생님이 손님 대접으로 바쁜 틈을 타 카운터를 차고 앉았어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저는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긴장을 하면서 바빠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에는 정말 두 손이 부족하더군요. 재미있는 손님도 간혹 계셔서 티켓을 가진 사람이 아직 안 왔으니 주문을 먼저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현금으로 드시고 나중에 티켓을 가져와 현금을 찾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티켓보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대부분 가지고 온 티켓으로 주문하시더군요. 더 많이 드시지....

노릇노릇 익은 훈제 치킨과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 쟁반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먹어보나 이럴 줄 알았으면 티켓 좀 남겨 놓을걸..... (회원이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했음)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는데 동생이 반갑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일 끝나고 늦게 온 친구들은 좋은 일 한다면서 격려도 해 주었어요.

한참 후에야 경기지부 샘들도 모여지기 시작해서야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 이기원 선생님이 티켓을 주셔서 골뱅이무침, 훈제 치킨 먹을 수 있었지요.

경기지부는 대단했습니다. 강영신 선생님의 부군은 친구분들을 열분이나 모셔오시고, 윤금주선생님의 부군은 수원에서 서울까지 짐을 옮겨주시고, 지연선생님은 동창회를 열어 엄



청난 수입을 거두어 들고.

주점이 끝날무렵 술선수범하여 주점의 정리를 하는 선생님들을 뒤로 하고 저는 멀다는 핑계로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일일호프가 열리면 저도 동창회 소집하렵니다. 특히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신 이경녀 선생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대접하느라 주점 관리하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의 카리스마에 놀랐습니다.

확대간부훈련을 갔다와서

이보경 · 회원, 서울

간부훈련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내가 2003년도에 서울지부 홍보부(전 소식지 만들이 모임)의 부장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원으로서 좀 더 '한국보육교사회'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설렘과 기대, 긴장 속에서 확대간부훈련에 참가는 했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들인지.....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게까지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다.

첫째 날, 정책논의 「'보육' 어떻게 바라보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할 땐 좀 힘들었다. '보육'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대답만이 나올 뿐이었다.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녁 먹고 나서였는데, 그전부터 너무 피곤해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



고 자버린 것이 많이 아쉬웠다. 내가 있던 조에서는 그렇게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조에서 토론한 것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날 밤에 토론 발표와 더불어 조직위의 논의과정 보고 및 토론도 있었는데 무척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도 놓치고 말았다. 다음날 종합토론을 할 때 전날 저녁에 일찍 잔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힘들었다.

확대간부훈련에 참가는 했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참여했다는 생각은 안든다. 첫날밤에 있었던 토론들이 이번 훈련에 핵심이었을 터인데,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갔다와서 내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있었다. 그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육현장과 관련이 되고, 왜 그것을 알아야 하는지'와 '앞으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이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다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느끼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보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확대간부훈련이라는 것이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많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나온 내용들은 보육교사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젠 세상에 참여하자!

이수미 · 서울, 이화어린이집

이번으로부터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우리 화에 새로 들어오는 신선한 신입회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지요. 앞으로 회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모두 소개할 수 없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 얼굴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곳을 통해 미리미리 익혀둔 새내기 얼굴, 나중에 다른 곳에 만나면 따뜻하게 챙겨주세요.

신입회원 이수미 신고합니다. 저는 마포구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에서 2001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육교사회를 알게 된 것은 이화 어린이집 교사가 되면서 부터인데, 당시 박금희 원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이 모임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우리네 아이들'이란 책자를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네 아이들을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탐독하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말경 함께 교사 생활을 하던, 구미진 선생님이 보육교사회가 주최하는 일본 보육시설 연수자로 뽑혀 참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임에 꼭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입해서, 언제 일본에 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들어 보육 교사 회를 접어둔 채 1년이 지날 무렵, 일본에서 보육교사 두 분이 이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이 단체에 꼭 가입해, 언젠가 되더라도 이런 경험을 가져 보고자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입회원이 된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가입이유가 보육교사회가 갖는 아주 긍정적이고 화려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단체에 가입한 속마음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32살이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돈 모아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친구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점점 관계의 폭도 좁아지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을 조용히 살펴본 끝에, 보육교사로서, 여자로서, 나 자신으로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세상에 참여하자!"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육교사회 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뒤따르는 문제는 책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모임에 왔는지,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선 제 자신이 세상과 친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기에, 보육교사회에 부분 기대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저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극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인물탐방기

이원경 · 후원회원, 부산

보육교사회는 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

- 임남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육이 아닌 다른 장에서 각각 여성과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보육교사회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얼굴 보면 말을 놓을 터인데 지면이라 존대말을 쓰자니 좀 어색하기도 하군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멀리 있지만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 임남희 선생님은 예전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보육교사회 안산지회에서 활동하다가 부회장도 지낸 분입니다.

임남희 선생님~! 니 어떻게 사나?



Q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이면 게으름 피다가 애들 깨워 출근하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놀다가를 되풀이하다, 애들 찾아 집에 가서 다시 제2의 노동을 시작하지요.

Q 그럼 현재 일하시고 계신 장은?

안산여성노동자회 양지자활후견기관입니다.

Q 선생님께서 활동무대를 옮기신지 몇 년 되었고... 오랜만에 이전 지택연 시절에서부터의 활동을 한번 되돌아 봐주세요. 그리고 가족 소개도 잠깐...

지택연 아닌 보육교사회에서 배운 것을 아직도 써먹고 다녀요. 그런 의미에서 보

육교사회는 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지요. 거기서 배운 인간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갈등을 푸는 방법, 그리고 일하는 방법까지요. 참 사업 아이템까지 얻으니 정말 고마운 조직이군요.

근데 정리할 때 너무 내 생각만해서 선뜻 잘난 척하고 설레발치기가 양심에 꺼려져요.

그래도 지탁연에서 보육교사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스스로 대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건 아마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식구는 남편, 아들, 딸 그리고 목소리 제일 큰 내가 살아요.

❖ 활동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안산에서 진달래동산 만들 때 다음날인 일요일에 이사해야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엄청난 돈이 뱅꾸나서 서로 울고불고 했던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이 이사해서 잘 놀았지요. 그 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련한 긴장과 미소가 떠오려요.

❖ 안산여성노동자회로 활동의 장을 옮기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안산여성노동자회로 옮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역이 근거지였고 지역에서 나를 필요로하고 둘째 아이를 갖 낳아 아이가 너무 어리고, 보육교사회는 너무 멀고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정리했어요. 다시한번 뜨끔하네요.

❖ 지금까지 계속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들에게는 더 부드러운 교사, 부모에게는 더 친근감 있는 교사, 동료교사에게는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요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내가 겪어온 일보다 다른 사람이 겪고 살아온 세상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삶을 살아 오고 아직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삶의 의지와 동력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육아문제는 어떻게?

주2회는 남편, 주3회는 내가, 주말은 공동으로가 원래 우리부부 육아의 원칙인데 지금은 서로 시간날 때로 어느샌가 원칙이 무너지버렸으니 애들은 땀날 애정결핍으로 허덕이죠. 주변에 일하는 선후배가 잘 도와주고요. 옛날 안산지역 보육교사

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 너무 안심되요. 그래서 우리집 가훈이 엄마 아빠는 회사, 어린이는 어린이집입니다.

❖ 뭘 때마다 예쁘지인데 그 비결은?

정말 뵈나요? 지금은 감춰진 흰머리가 자꾸 나와서 속상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잘 감추질 못해서... 난 팬찮아요. 왜 하고 싶은 말 못 참고, 성질나면 내고, 웃기면 웃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 주변사람이 좀 피곤하겠죠. 한바탕 성질대로 하고 나면 다시 미안해서 자제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쓰고나니 딱 정신 병자네.

❖ 지금까지의 활동 속에서의 간단한 반성과 함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말 헌신적이지 않았어요. 쉽게 힘들어하고, 푸념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좀더 진득하게 헌신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중한 건 이런 나를 아직도 챙기는 보육교사회가 있고 잊지 않고 찾아주는 선배 혹은 후배가 소중해요.

❖ 10년 뒤 모습은?

0년 뒤라... 그럼 내 나이 47. 아직도 어디선가 일하고 있겠네요. 그때는 정말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 한국보육교사회에 바라는 일이나 후배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때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하신다면?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한데요. 87년도 산동네 언덕에서 활동했던 선배도 이름을 날리지 않았고, 90년도 국회앞에서 악을 박박쓰던 동료들도 오늘의 보육을 내가 만들었다고 나서지 않았습시다. 힘들고 어렵게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던 관찰소모임 언니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마음놓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잘났다고 나서지는 않아 그것이 때론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보육교사회가 있어 안심이 됩니다. 나를 위해 도망친 조직이지만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가슴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압둘 가사지의 정원

이진실 · 인천, 샘터어린이집



몇 해 전에 그림책강좌를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환상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상력이란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능력’이라면서 예를 든 그림책 가운데 눈길을 끈 책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그린 흑백그림책이어서 그랬는지, 환상 그림책의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대표적인 그림책의 하나라고 해서인지, 아님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일까요? ‘언젠가 저 책이 나오면 꼭 사 봐야지...’

주만지(Jumanji)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우연하게 주만지라는 신비의 게임을 발견하게 되고 호기심으로 주사위를 던진 아이들 앞에 상상력을 뛰어넘는 게임이 펼쳐지게 되지요. 처음엔 느긋하게 보다가, 점점 세상을 뛰어넘는 화면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현실과 환상을 오고가는 작품들로 유명한 이 그림책 작가의 또 다른 그림책 ‘주만지’는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압둘 가사지의 정원’이라는 그림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압둘 가사지’라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 제목과 마치 흑백영화를 보는 것같은 정교하고도 세밀한 장면들이 독특하고도 신비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언필로 그런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눈에 가까이 대고 볼 정도로 작가의 표현력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눈에 익은 듯한 장면이 웬지 오싹하리 만치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건 마법사의 정원이어서 그런 건가요?

책표지에 토끼, 오리, 코끼리, 공을 든 물개, 생쥐모양의 나무들 사이로 달려가는 강아지와 뒤쫓는 아이모습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엿 볼 수 있습니다.

헤스터 아줌마가 사촌 동생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헤스터 아줌마는 말쑥꾸러기 개 프리츠를 꼬마 앨런에게 부탁하고 외출합니다. 뭘든지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프리츠를 돌보느라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난 앨런은 프리츠를 줄에 묶어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길가의 하얀 다리를 건너 가다가 앨런은 경고판 하나를 봅니다. ‘절대로, 개를 데리고 정원에 들어오지 마시오- 은퇴한 마법사 압둘 가사지’의 경고. 앨런은 두려워 돌아가려고 하지만 프리츠는 줄을 끊고 정원으로 달려갑니다. 앨런은 프리츠를 잡으려 정원 깊숙이 달려가지만 프리츠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츠를 찾지 못한 앨런은 프리츠가 압둘에게 붙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둘의 집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프리츠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미 프리츠는 오리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압둘 가사지는 앨런에게 오리를 데리고 가고 다시는 개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해줍니다. 앨런이 오리를 안고 압둘의 정원을 빠져나올 때,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앨런의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모자를 주우려는 순간 오리는 품에서 빠져나와 모자를 물고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걱정에 싸여 집으로 돌아온 앨런. 그런데 프리츠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고 헤스터 아줌마는 마법사 압둘 가사지가 앨런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합니다. 앨런은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앨런의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프리츠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아줌마 발치에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바로 앨런의 모자. 아줌마는 “이런 못된 녀석, 앨런 모자를 갖고 뭘 하는 거니?” 마지막 반전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상그림책은 현실과 환상세계의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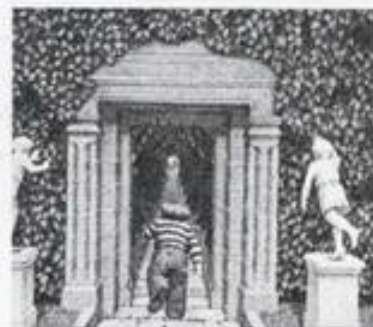
그림책을 더 잘 보는 방법은 아이처럼 보고,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읽어줄 땐 이야기의 반전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반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개를 오리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미있어하고, 자기 자신이 마법사가 되어 친구나 엄마도 오리로 변하게 하겠다는 마법의 주문(?)을 겁니다.

또 컴퓨터 게임과 텔레비전,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겐 더 이상 ‘마법’이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반전의 재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마법사 압둘 가사지의 정원에서 그들과 헤스터 아줌마와 만나는 꿈을 상상해봅니다.



민수, 민기 오누이 이야기

이선미 · 서울, 별나라어린이집

민수와 민기는 이선미 샘의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이빠따라 경기도 시골에 내려가 살다보니 끼무잡잡한 개구쟁이 산복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풀칠해주러 와서- 이선미 샘은 가끔 휴가를 사무국 자원봉사로 지내는데 이상하게 선미 샘이 올 때면 저희는 우편발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미샘은 우편발송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 들려주는 민수, 민기 오누이의 얘기가 재미있어 여러분께도 소개합니다.

01 엄마가 오셔야 하는데....

엄마가 잠깐 외출한 사이 민수(여, 5세)가 민기(남, 3세)가 놀다가 사진 액자를 떨어뜨려 사진틀이 빠졌다.

민수 : 엄마가 빨리 와야 '미안해' 하는데.

할머니 : 엄마 금방 오실꺼야.

민수는 내내 안절부절하며 '엄마가 빨리 와야 미안해 하는데' 물 언발하다가 엄마가 들어오자 대뜸,

민수 : 엄마, 미안해

엄마 : (침연 영문을 몰라) 영?

민수 : (울음을 참으며) 엄마, 미안하다니까~

엄마 : (사태파악 후 웃음을 참으며)

민수 : 엄마, 미안하다고 했잖아. 흑흑, 엉엉엉...

옆에 서 있던 민기 : 엄마 내가 안했어. 누나가 했어. 누나가.

엄마 : 하하하, 괜찮아.



이웃소통을 위한



02 술취한 아빠를 위해

오누이가 엄마, 아빠의 송년회에 따라 갔다가 택시를 탔다.

아빠 : 정~상~동으로 가야 주세요. (술에 취해 발음이 섰다)

뒤에 앉아 있던 민수가 택시 기사 아저씨를 위로한다.

'아빠가 술에 취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 : 예구구..

03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민기 : 엄마,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엄마 : 글썄...

민기 : 하느님이 날개를 빌려주면 올라갈 수 있잖아.

엄마 : 그렇지네.

민기 : 그런데 창문이 있어야 하는데.

민수 : 하늘나라 창문은 구름이야. 구름이 비켜주면 햇님이 나오잖아.

민기 : 으음~.

04 눈

차를 타고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데, 밤새 눈이 하얗게 내렸다.

밖을 내다 보던 엄마가 무심결에 '눈은 왜 하얗까?'

민기 : (도사같은 말투로) 눈은 원래 하얀 거야.

민수 : 엄마는 그것도 몰라!

미운 일곱 살 소연이

전경숙 · 경기, 회원

요즘 소연이에게 화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고는 꼭 후회를 한다.

소연이가 엄마가 왜 저러나 하면서 멍한 표정을 짓거나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면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옆에 있던 애들 아빠도 의외의 행동에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 때 말한다.

“당신 옛날만큼 인내심이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존경스러운 만치 잘 참더니...”

그랬다.

소정이 낳고 6개월만에 복귀했을 때 소정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잤고, 소연이도 서너 살 때라서 한참 엄마 손이 필요했고, 어린이집에서 다른 교사들보다 때로는 똑같은 몫으로 때로는 더 작은 몫으로 일이 벌어져도 헉헉대며 벅차했던 때의 이야기이다. 그 때는 내 스스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무리 떼를 써도, 새벽에 몇 번 씩 깨서 울거나 요구를 해도 화 한번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 받아주었다. 그것은 소연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작용했던 것 같다.

하나는 원죄 같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소정이 아픈 것이 모두 내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임신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아기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아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교육철학에서 ‘모든 것이 어른 탓이지 아이들에게 혼낼 일이라는 것은 없다. 혼낼 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른이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나 보다.

화가 날 때마다 내 스스로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넘길 때가 많았다.

그 때는 영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던 내가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니 애들 아빠는 의아해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객관적인 조건은 그때 보다 훨씬 좋아졌다.

소정이가 거의 나아서 이제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해가 바뀌어서 여섯, 여덟 살이 되었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많다. 그렇게 형편 좋아졌는데 왜 화는 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대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은 소연이다.

소정에게 보다 소연에게 더 많이 낸다.

소연이는 일곱 살이니까, 어린이집에서 제일 큰 아이니까....

내가 영아반을 맡고있을 때 6.7세 반 선생님이 너무나 부러운 적이 있었다.

내가 영아들 기저귀 갈고 빨고, 밥 먹여주고 재워줄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면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들. 아이가 7세 정도 되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그 당시의 생각들이 남아있어서인지 7세인 소연이가 떼를 쓰거나 엄마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사리분별도 잘하고 알아서 척척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 줄 때도 있었다.

작년 초였나 보다.

보통 때는 아침준비 다하고 애들을 8시 30분쯤 깨우는데, 8시도 안되었는데 소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자기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뭘하니?” 하고 물으니 엄마가 청소하기 힘들까봐서 자기가 정리한다고 했다.

또 한번은 이사하고 얼마 안 된 휴일, 유리창 청소를 하느라고 점심때를 놓쳤다. 소정이가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는데 마무리하고 들어가야했기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몇 분 후 물 뜨러 들어가 보니 소연이가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고 밥통에서 밥을 퍼서 소정이랑 작은 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배도 고프고 어찌나 기특하던지 반찬 몇 개 더 꺼내 놓고는 딸이 차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쏟을 뻔 했었다.

아마도 소연이는 엄마를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을 것 같다.

아마도 소연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소연아, 이거 해줄래? 저것 좀 하면 어떻겠니?”

점점 엄마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연이의 호기심은 부담으로 와 닿았으리라. 엄마의 말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던 착한 소연이가 어느 순간부터 뻔질이 소연이가 되었다.

몇 년전 어린이집 교사들과 전통사회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미운 일곱 살에 대한 개념 정리였다.

이제사 기억을 되짚으면 미운 일곱살은 입곱살에 미운 짓을 해서만은 아니고, 그때부터 가족 지향적이었던 특징이 또래 지향적으로 나타나서 여성적이던 모방, 동일시 등의 소극적이고 유순했던 행동이 적극적이고 거칠게 나타난다. 가족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며 칭찬 받는데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또래들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평소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개념속에 동생에 대한 견제나 퇴행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소연이를 잘 말해준다.

결국 소연이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고 그래서 라고 개념 정리까지 해놓았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어린이집 떠난 지 몇 년 되었다고 무던 엄마는 아이가 큰 것도 모르고 화만 냈으니...

그 책에는 제념적 의미 말고도 희망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훈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할 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연이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해야겠다.

또 이제 점점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소연이에게 놀아줘 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아무튼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린 냄비가 아니다.

이선미 · 본회 보육정책위원

2002년 12월 14일 저녁 시청 앞.

차도에 차는 없고 손에 손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다. 한 보육교사가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촛불을 밝히려 왔다. 불비는 인파 속에서 한국보육교사회의 깃발을 찾아 아이들을 무등을 태우고 걸어간다.

아, 찾았다. 우리 보육교사회 깃발.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는 광장의 한 소망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벌써 지난해가 되어버린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외침을 만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유유히 비행기를 타고 떠난 미군을 보며, 살인을 해도 힘이 센 나라면 무죄가 되는 기막힌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작은 손들을 잡고 촛불을 밝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

보육교사들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곤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 12월 22일 본회 홈페이지 보육주제토론회에 실린 글입니다.

시청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땅을 지키려고 외쳤습니다. "SOFA 개정하라. 우리는 냄비가 아니다." 분노로 달아오르다 그냥 사그라드는 냄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의 연대의 힘은 평화를 위한 연대이며, 전쟁으로 살길을 찾는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상생을 위한 연대입니다.

월드컵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하며 서로의 삶을 북돋았고, 지금 촛불을 밝히 우리의 평화를 위해 떠돌고 있습니다.

2003년, 아직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미선이, 효순이가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평등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에 새로운 정부도 함께 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간의 평등한 관계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걸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는 것이 연대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북핵 문제도 특정국에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유아통합보육(교육)을 위한 교사의 작은소망

강유라

아래의 글은 12월 22일 본회 홈페이지 보육주제토론회에 실린 글입니다.

현행 장애교육(보육)통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그들의 교육적, 복지적, 평등한 기회제공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고로 많은 정치적 정책들이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적, 복지적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하는 것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유아들은 어릴적부터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개별적 차이의 편차가 큰 것일뿐이지 그들이 가져야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어린 유아기부터 사회적 분리, 단절, 소외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2003년부터 장애아동무상보육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보육을 위해 전국에 60여개(한개소당 20~30명수준)의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의 장애통합교육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장애전담보육시설만으로 장애보육을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전담시설 또한 감사하지만 전담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유아나 가족도 있겠지만 모든 장애를 가진 유아들과 가족들에게 일반교육과의 통합된 환경에 아동이 적응될 수 있을 만큼 아동의 발달이 향상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발달상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분리된 교육적 환경보다는 단계적으로 잘 준비된 체계적이고 통합이 진행되었을 때 유아들에게 매우 발전적라

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신 교사나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일반교사나 교육기관의 운영자나 정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장애통합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려하고 있으나 진정한 교사라면 장애를 가진 유아나 일반유아나 교사에게 똑같은 사랑스런 유아로 다가올 것이며, 유아들에게 똑같은 장난끼어린 친구임에 불과하지 어른들에 눈에 비치는 편견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몇 안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장애통합교육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장애통합을 확대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명 국공립시설은 몇몇시설을 제외하곤 규모 또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아동 정원 60명정도가 대부분).

아직 장애보육교사나 교사수급 또는 프로그램 준비가 미흡한 현행 시점에서는 위탁 운영자의 장애보육에 대한 마인드나 준비도가 없거나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별반 효과없이 억지로 떠밀려 물리적인 통합만 강요당하게 되고 그로인해 장애유아들에게 발달상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만 낭비하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통합이 분리보다는 너무나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물리적 통합이나 행정적이고 탁상본적인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통합 또한 더욱 위험하겠지요.

이제 저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이제껏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다보니 부모님의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장애유아들은 분리된 환경보다 통합된 사회환경안에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보육 또는 공교육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민간주도형적인 교육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말고 장애유아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적적,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과정을 보수교육 받도록 하고 많은 유아교육기관들이 장애통합의 성공사례를 포트폴리오화 하여 발표되고 연구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복지부의 교사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의 정책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또 한가지 민간어린이집의 장애통합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한다고 하면 솔직히 관할 구청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배려만 있어도 관심있는 민간교육기관들이 동참하여 일반교사가 보수교육받고 장애아통합지원적 분위기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보육예산 또한 지자체로 인해 지역별로 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기에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과 부담을 국가가 부모에게 민간 사회사업가들에게 떠안기기 보다는 보다 공평한 정책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유아의 교육복지서비스에 있어 몇안되는 국공립기관만을 지원하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기보다는 현재의 보육기관 형태유형에 맡겨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장애통합보육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거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애부모님의 소원대로 "내 아이도 동네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듯 장애유아와 그 가족들의 삶과 행복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유아통합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는 절대 우리사회에서 특히 교사에게 간과되선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공립중에 몇몇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교육을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예, 7어린이집)

이러한 교육과 교사 그리고 교육기관이 2003년도 부터는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제7차 정기 총회 및 2003년 겨울수련회 안내

- 일 시 : 2003년 1월 25일(토) ~ 26일(일)
- 장 소 : 부천복사골 연수원
- 참가비 : 회원 25,000원, 아동(36개월 이상만 참가비를 받습니다.) 16,000원,
비회원 30,000원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베품시장에서 바뀔 쓸 물건
- 참가문의 : 2-2275-8505/ kda@chollian.net(이경너)

일정표

오전	8:00-9:00 9:00-9:10 9:10-12:30 12:30	기상, 식사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보고 제7차 정기총회 집으로
오후	5:30-6:30 6:00-6:50 7:00-7:20 7:20-8:00 8:10-9:00 9:00-11:00 11:00-12:00 12:00~	접수 저녁식사 현장연구사전공모전 설명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 보고회 조직위원회 보고-조직전망을 기본으로 지부별 토의 공동체놀이 지부별 자유시간

○ 장소 찾아오는 방법

지방에서 오는 경우

영등포역에서 하차 →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복사골연수원

경인지역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복사골 연수원

한국보육교사회 교육부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돌봄”을 주제로 현장연구모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회의 보육철학을 정리하면서 아동과 보육교사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의 돌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고자 합니다.

현장연구모임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보육활동을 돌아보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장연구모임을 담당해주실 엄지숙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재직중이시며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등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장연구모임은 매월 1회 목요일 저녁 6시-8시30분까지 장충동 우리 회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하는 교사들은 월 1회 토론회모임에 참가합니다. 이 외에, 주 1회 ‘저널쓰기’를 하며 이를 현장연구모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담당교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보육활동에 대해 코멘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장연구모임은 2003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합니다.

현장연구모임 참가 교사는 5인 이내로 한정됩니다. 2월21일까지 한국보육교사회로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참가신청자격은 한국보육교사회 준회원 이상 가능합니다.

*저널쓰기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돌봄에 관련한 활동을 기록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 화성 돌아보기

수원에 있는 화성은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수원에 오셔서 화성을 돌아보시면서 정조대왕의 포부, 정조시대의 역사, 그 시대 건축물의 특징 등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수원의 화성은 유네스코에도 세계적인 문화재로 올라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다 화성을 지을 때 담당했던 관리이름, 인부들의 노임까지도 소장회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때문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파손되었어도 바로 이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조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도 돌아보시고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세요.

문의: 031)221-0056

일요일은 서정대 안내소에서 1시30분부터 화성길라잡이하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안내를 부탁해도 됩니다.

[공연] 호랑이 이야기

일시: 2003년 01월 01일 - 2003년 01월 30일

시간: 02년 12월 5일 - 03년 1월 30일

[화,금 2시, 4시 / 토,일,공휴일: 1시,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주최: 극단 사다리, 큐엔에스

장소: 서울 서울동영아트홀(구 계동아트홀)

문의: 02-559-5231

내용: 재미있는 놀이연극으로 풀어보는 극단 사다리의 동화 이야기 시리즈.

전래동화 (은혜깊은 호랑이)를 놀이연극으로 구성한 <호랑이 이야기>는 사물놀이, 민요, 탈춤 등 우리네 가락이 가득한 신명나는 마당극으로 선보입니다. 해설자가 직접 북을 치며 들려주는 사람네음 가득한 친근하고 다정한 호랑이를 만나보세요.

[전시]

고구려! -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

기간: 2003년 01월 01일 - 2003년 2월 28일

장소: 서울 서울코엑스 3층 특별전시장 (프레스센터)

문의: 02-3443-2511

홈페이지: <http://www.gogogo.or.kr>

내용: 전시회에서 공개될 복록 고구려 유물 중에는 국보급 유물 4점을 포함해 다수의 진품이 공개될 예정이며 특히 4점의 국보급 유물중 영강7년(551년) 금동광배는 용인 호암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 제118호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뒤에 붙었던 광배로, 이번 전시를 통해 남북이 한몸으로 성불하게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품목:

- 북한 국보 4점을 포함한 진품 유물 30점
- 실물크기 복원 벽화무덤 5기
- 실물크기 벽화모사도 61점 이상
- 동명왕릉 등 축소 복원 유적 4점
- 개마무사, 무장보병 복원 무사상 2점
- 복원 유물 38점
- 복원 악기 10점
- 복원 의상 10점
- 각종 유적 사진 32점
- 중국 집안과 한국 고구려 유물, 유적 사진 등

2003년 장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교육

기간: 2003년 02월 11일 - 2003년 02월 14일

주최: 한국장애아통합지원연구회

장소: 서울 밀알학교 지하1층3호선 일원역

교육대상: 본 교육에 관심있는 재장애아 통합관련 시설장 및 교사, 전공관련 학생 등

교육비: 교사1인당 70,000원(교재비 포함)

접수방법: 교육비 입금 후 신청서 사진 접수

계좌번호: 596-04-523791

예금주: 장혜성(조흥은행)

E-mail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오니 입금시 반드시 E-mail주소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FAX접수: 02-3412-1997

E-mail: jeeyoung21@hanmail.net

문의: 02-3412-1998-9

일정

2003.2.11. 화

13:30-15:25 통합보육의 정책과 제도 이창미

15:35-17:30 어린이집에서의 통합보육 이미란

2003.2.12. 수

13:30-15:25 장애아의 발달적 특성 윤현숙

15:35-17:30 장애아의 진단 및 평가 조윤경

2003.2.13. 목

13:30-15:25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김수진

15:35-17:30 장애아의 부적응 행동지원 박지연

2003.1.14. 금

13:30-15:25 장애아의 언어교육 장혜성

15:35-17:30 통합 어린이집 사례발표

오경숙, 김지영

중앙소식

- 11월 2일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기금 마련 한국보육교사회 후원주점 "아이들이 신나는 세상! 부모가 즐거운 세상! 보육교사가 보람찬 세상! "이 시청의 비즈니스 호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와주신 모든 분들과 열심히 주점일꾼으로 호라동해주시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의 후원 사업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6일 -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자를 만나는 대선여성연대의 3대 핵심과제전달식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씩씩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11월 8~9일 여성플라자에서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과 사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최는 본회와 한일보육교류협의회의, 일한보육교류협의회였으며 한일 양국에서 보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11월 12일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자를 만나는 대선여성연대의 3대 핵심과제전달식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12일 - 여성단체연합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선여성연대 활동과 여연총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제 17차 여연총회 총회준비위원으로 결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11월 15일 복지부 보육과에서 진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된 보육현장과 요구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개정 내용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16일 안산에서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강사로는 유정은 선생님과 서정은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11월 15일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수상한 비추미 대상 시상식이 KBS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16일 - 관악보육사랑방모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대선 후보자들의 보육공약에 대한 비교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18일 -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선후보자들의 보육공약검토와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건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21일 -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진행된 방과후보육정책개발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과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을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되 방과후보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자로 하자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11월 21일 건강교사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일상적인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점검과 아동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질의 응답의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11월 22일 - 노원북부 실업자사업단에서 주최한 산모도우미 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23일 10시 교육위원회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논의의 과제를 잡았습니다.
- 11월 26일 -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자를 만나는 대선여성연대의 3대 핵심과제 전달식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6일 - 복지부 보육과에서 진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자격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27일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주최한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의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의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 우선입소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11월 29일 [보육시설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모델] 연구 보고서 발표회가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회 주최의 행사로 서울시여성발전기금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 11월 30일 ~ 12월 1일 양일간 수원외의 평동어린이집에서 본 회 확대간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지부의 현 간부들과 차기 간부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회의 조직 전환에 대한 논의와 보육의 확대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공부, 토론하였습니다.
- 12월 3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3일 전진상 교육관에서 "대선, 보육으로 구분짓기"라는 주제로 02년 대선후보자들의 보육정책 비교와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위해 필요한 보육정책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12월 3일 인천지역의 건강교사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설별건강관리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 12월 5일 - 여연에서 주최한 "효순이, 미선이 추모 도깨비 굿"에 한국보육교사회가 공동주최를 참여하여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5일 - 2002년 한국장애인재활대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여성분과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니다.
- 12월 6일 - 여연복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6일 - 여연송년회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박정에 프로젝트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7일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의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교육사업의 전망과 방과후 교육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12월 10일 - 여연 총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총준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11일 - 서울시보육정보센타장을 선임하는 심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창미 전 곡교어린이집원장이 새로운 서울시보육정보센타장에 선임되었습니다.
 - 12월 11일 - 서울시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중장기 보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2월 12일 - 복지부 보육과에서 진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2월 13일 관악보육사랑방모임이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

- 습니다. 관악구의 보육현황과 보육욕구에 따른 방과후보육제도 마련과 바람직한 방과후보육시설 마련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 12월 13일 - 복지부 보육과에서 진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교육원 훈련과목과 운영에 대한 검토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2월 14일 10시 교육위원회모임이 있었습니다. 돌봄이 왜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안에서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12월 14일 제2차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2년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 12월 16일 - 복지부 보육과에서 진행된 2003년 보육사업안내개정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본회의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 12월 17일 - 대선여성연대에서 진행된 평등대통령 만들기 거리 캠페인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 이선주 교육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26일 -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30일 - 정책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02 사업평가와 2003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11월 13일 서울지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11월 14일 "미래모임"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11월 18일 서울지부 총회준비팀 회의가 7시30분 행복한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3일 - 24일 서울지부 MT(홍합과 고동이 우리를 기다린다!!)
- 11월 25일 서울지부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 11월 27일 서울지부 총회준비팀 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 11월 30-1일 한국보육교사회 중간간부훈련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7일 서울지부 총회가 4시-7시 청산교육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이선미, 오윤정, 박인혜 선생님이 선출되었으며 사무국장으로는 이상옥, 교육부장으로 김수연, 조직부장으로 김미나, 편집홍보부장으로 이보경 선생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부장은 김진숙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인천지부

- 11/9(토) 인천생협예술어린이집 개소식
- 11/16(토) - 회원의 날 : 노래 배우기, 안견 및 보고, 회원들 생일잔치
- 12/14(토) - 전통교육 소모임
- 12/14(토) - 주권회복의 날 범국민 평화

대행진 광화문 촛불추모제 참석

- 12/ 28(토) 인천지부 총회 오후 5시, 나래어린이집.
- 인천지부장으로 박은아, 조직부장은 이경미, 홍보부장은 류지민, 총무로 김계임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송년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 03년 1월 11일 총회가 개최되어 신임지부장으로 최미라, 사무국장으로 김경아, 교육부장으로 박수중, 조직부장으로 박미영, 선전편집부장으로 박은경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부산지부

- 11월 15일 "교사들이 만드는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그림책 소모임에서 연구하고 만든 그림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리고 이날 생태어린이집 만들기(녹색도시 21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와 공모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03년 1월 12일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 김명선 지부장님이 연임하며 조직부장은 김정애, 교육부장은 안미경, 동래지회장은 김경해, 금정지회장은 김순아, 진구지회장은 박희순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간부여러분! 간부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올 한 해 힘 있는 활동 기대합니다.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부산의 김은령 선생님이 03년 1월 12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며 멋진 결혼 생활하세요.
- 서울지부의 구미진 선생님이 12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요즘 신혼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는군요. 축하합니다.
- 목포지회의 박재희 선생님이 12월 4일 결혼하셨습니다. 목포지회 회원들 올해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 광주의 김영금 선생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이와 별이를 양팔에 끼고 누워 뿌듯해 한다는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별이가 당당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여성신문 주최로 한 양성평등 바뀌가요제에서 이선주 샘과 아들 홍준이, 박정애 샘과 아들 승필이, 그리고 류지민 선생님이 인기만발상을 받았답니다. 게다가 상금까지 우리 회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 경기의 윤금주 선생님이 오산대학교에서

2년과정의 미술교육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 중앙 사무국의 이선주 선생님이 숙명여대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 서울의 임정수 선생님이 성균관대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개발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찬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야잇~~~~~!

환영합니다

- 서울지부에 신입회원이 대거(?)들어왔습니다. 박정화, 임정수, 박금옥, 이수미, 권소희, 최종문 선생님 이십니다. 이중에 남성 회원도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부에 새로운 기운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 지난 11월과 12월에 경기지부의 지연 선생님의 어머니와 박부자 선생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셨다는군요. 두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휴직합니다

- 경기 안산의 김실이 선생님이 올해로 보육교사 12년의 인생을 잠시(?)접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뒤탈라지로 무척 고

민하다가 쉬기로 했습니다. 한해 폭우고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착잡합니다. 편히 저도 쉬고 싶기도 하네요. 안산에서의 그녀와의 1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영미 선생님이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실이 선생님 잘 쉬시고 큰 아들 학교 잘 보내세요.

정애, 류지민 10만원, 이정님 2만원, 심선경 20만원, 이정미 10만원, 강영신 20만원, 위양자 10만원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12월 완납

〈인천지부〉 12월 완납

〈경기지부〉 12월 일부

〈부산지부〉 11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12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12차 1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2만원, 조선경 2만원, 이성혜 2만원, 김지희 1만원, 노수산 2만원

〈자료회원〉

이수연, 정미자, 최순옥, 한국어린이육영회, 이정님, 건양대도서관

〈후원해 주셨습니다.〉

원명순 1만원, 김종원 1만원, 장성일 1만원, 류호선 5만원, 엄소현 1만원, 백선희 1만원, 임태형 1만원, 오영숙 1만원, 권영춘 2만원, 김진명 5천원, 김은주 5천원, 신주영 5천원, 김정윤 1만원, 이선주, 박

본외11·12월 월명일지

11월	2일	후원주점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주점
	6일	보육연수단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7일	보육연수단 총평가회 및 환송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보육연수단 총평가회 및 환송회
	8~9일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행사
	16일	양성평등 교사 워크숍 경기 안산지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성평등 교사 워크숍 경기 안산지역
	18일	보육정책위	한국학중앙연구원 보육정책위원회
	19일	확대집행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확대집행위원회
	21일	건강교사모임	한국학중앙연구원 건강교사모임
	23일	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위원회
	29일	자원봉사 활용에 관한 결과 보고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원봉사 활용에 관한 결과 보고회
	30일~1일	확대간부훈련	한국학중앙연구원 확대간부훈련
12월	3일	대선관련보육정책토론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선관련보육정책토론회
		인천지역 건강교사모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천지역 건강교사모임
	10일	확대집행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확대집행위원회
	13일	관악보육사랑방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악보육사랑방
		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위원회
	23일	확대집행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확대집행위원회
	30일	보육정책위	한국학중앙연구원 보육정책위원회

편집부에서

99년 5월호부터 그동안 제가 만든(?) 우리네 아이들이 벌써 스물세권째네요.

스물 세권의 우리네 아이들. 비록 칼라 한 페이지 들어 있지 않고 다른 잡지처럼 세련된 현장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책을 넘길 때마다 묻어나는 현장의 생생한 고민들과 보다 진보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보육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글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지난 4년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만들면서, 중앙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제 자신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보육에 대해 뭣도 모르고 까불대다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의 지난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구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도 늘구요. ^^

그렇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기획부터 원고 수집까지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제가 4년째를 맞이하면서 지금은 노련해졌다고 할까요, 잔피가 늘었다고 할까요.

또 다시 관성화 되고 건방져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지 싶을 때 마침 후임자가 나타났구요.

누구나가요?

아실텐데요. 지난 02년 11/12월호를 만든 황미혜 선생님.

이미 편집 경력으로 치면 제 한참 선배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일을 털고 나가는데 맘이 좀 홀가분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현장에서 우리네 아이들에 원고를 보내고 또 어린이집으로 날아오는 우리네 아이들을 재미나게 읽는 독자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본 공고의 목적은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라 함)의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공고의 적용범위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본 공고의 효력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 공고의 시행일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본 공고의解释权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6. 본 공고의 폐지일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7. 본 공고의 부속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8. 본 공고의 시행령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9. 본 공고의 시행규칙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본 공고의 시행지침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본 공고의 시행요령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4.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8.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9.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3.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4.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5.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6.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7.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8.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9.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본 공고의 시행절차는 본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화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